

운양(雲養) 김윤식(金允植)의 주의류(奏議類) 산문 연구

A Study on Unyang Kim Yun-sik's Juui-ryu Prose

강혜중^{*}

국문요약 운양(雲陽)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은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입장에 섰던 관료문인이자 당대의 손꼽히는 문장가로, 그의 글에는 '시무(時務)'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본고는 이러한 면모에 주목하여 김윤식의 문장론을 바탕으로 주의류 산문의 서술 양상을 검토하였다. 김윤식은 '경세지문(經世之文)'의 가치를 중시하였으며, 주의문을 역사적 견문을 넓히고 정책을 참고하는 자료이자 문장의 전범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주의문 비평은 문장의 풍격과 논지 전개, 수사법, 경세론과 작자에 대한 인물 비평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특히 주장의 타당성, 논리의 정합성, 군심(君心)을 움직이는 설득력을 주의문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보았는데, 「삼정책」에 나타나는 직설적 화법과 격절한 수사, 시무를 중심으로 한 구폐론은 이러한 시각이 실제 글쓰기에 구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주요 관직을 수행하며 올린 1880년대의 상소에서는 기민한 '시세(時勢)' 파악을 토대로 정책적 판단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논하는 단락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설득력을 높였다. 특히 정치적 공박에 대한 해명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자열소에서는, 격절한 수사를 바탕으로 '정리(情理)'의 논리를 치밀하게 동원하였다. 김윤식의 주의류 산문에는 경세론과 문장론, 설득적 논리와 전략적 수사가 긴밀하게 조응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핵심어 김윤식, 상소문, 삼정책, 문장론, 시무, 시세, 변통

- 차례**
1. 머리말
 2. 김윤식의 문장론과 주의류 산문에 대한 인식
 3. 주의류 산문의 서술적 특징과 경세론의 전개 양상
 4. 맺음말

다. 1865년(고종 2) 음관으로 출사한 이후 1874년 비교적 늦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이후 요직을 역임하며 당대의 국내외 유력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주요 정치 현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적지 않은 정치적 부침을 겪었다.

『운양집(雲養集)』은 생전에 김윤식이 직접 서문을 붙이고 정리하여 간행되었는데, 자서(自序)에는 이 책이 저자 자신의 정치적 이력을 담고 있는 기록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김윤식의 글 속에서 확인되는 '시무(時務)'에 대한 깊은 관심과 관각문인으로서의 활동 기록은, 이른바 '경세지문(經世之文)'이 김윤식 글쓰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시무에 관심을 바탕으로 경세론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유신환(兪莘煥,

1. 머리말

운양(雲養)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은 '동도서기(東道西器)'의 편에 섰던 관료문인이자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친 문장가로 평가받는 한편, 친청(親淸), 친일(親日) 등의 정치적 노선에 관한 여러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다.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1801~1859)과 박규수(朴珪壽, 1807~1877)의 문하에서 받았던 학문적·사상적 영향과도 관련이 있다.

한편, 김윤식의 정치적 이력에 대한 논란과 문장가로서의 명성은 전통 문집과 근대 매체를 넘나들고 할 수 있다. 김택영(金澤榮, 1850~1927), 여규형(呂圭亨, 1848~1921), 정만조(鄭萬朝, 1858~1936) 등 당대 한문학계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들에게 고문가(古文家)로 인정을 받았고,¹ 사후 그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도,² 문장가의 죽음을 애석해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으며,³ ‘관각거장(館閣巨匠)’으로 세상의 정평이 나 있었다는 사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⁴ 이처럼 20세기 전후를 살아간 김윤식의 생애와 활동이 지닌 복합성과 그 의미는 정치사적, 문학사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되어 왔다.

전자의 경우 동도서기론을 주장했던 온건개화파로서의 사상과 실천에 대한 연구가 비중 있게 진행되었고,⁵ 후자의 경우에는 김윤식의 문장론과 고문가로서의 면모가 조명되었으며,⁶ 운문과 산문의 문체별 검토가 꾸준히

이루어졌다.⁷ 이를 통해, 김윤식은 ‘재도(載道)’가 아닌 ‘관도(貫道)’의 관점에서 문장을 바라봄으로써, ‘인문입도(因文入道)’의 시각을 바탕으로 문장의 효용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이 주목되었다.⁸ 또한 설득력과 수사미를 제고하는 산문의 작법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능숙한 문장가의 면모가 확인되기도 하였다.⁹

다만, 이 과정에서 주의류 산문은 주로 김윤식의 정치적 활동이나 현실 인식 등을 검토하는 자료로 다루어졌으며, 문학 연구에 있어서는 작품 전반이 아닌 특정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된 바 있다. 주요 논의로는 1862년 발생한 ‘임술민란(壬戌民亂)’¹⁰을 계기로 구언에 응하여 작성된 「삼정책(三政策)」의 글쓰기 방식의 특징과 변통론이 당대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 검토되거나,¹¹ 19세기

植 散文 研究: 文論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등.

7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허경진·최해연, 「운양(雲養) 김윤식(金允植)의 사행시를 통해 본 인식 변화」, 『영주어문』 21, 영주어문학회, 2011; 김용태, 「김윤식과 스에마쓰겐초의 시문 수창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42, 열상고전연구회, 2014; 권진욱, 「雲養 金允植의 記文 研究」, 『한국인물사연구』 24, (사)한국인물사연구회, 2015; 연민희, 「雲養 金允植의 散文 研究」, 충남대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권진욱, 앞의 연구, 2021; 유재환, 「雲養 金允植의 詩論과 詩世界의 實際: 지도 유배기 시를 통해 본 시론의 구현 양상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84, 동양고전학회, 2021 등.

8 정민은 ‘因文入道’의 도문론을 김윤식 문장론의 요체로 보고, 김윤식이 ‘道’와 ‘文’을 상보적 관계로 이해한 점에 주목하였으며, 연민희 역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김윤식 문장론에 전개된 ‘貫道’의 개념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정민, 앞의 글, 1989, 169~174쪽; 연민희, 「雲養 金允植의 散文 研究」, 충남대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31~39쪽 참조.

9 연민희는 인용과 예시, 문답법의 활용, 역양과 대우의 반복적 사용을 김윤식 산문에서 보이는 수사적 특징으로 꼽았다. 자세한 내용은, 연민희, 「雲養 金允植 散文의 表現技法 研究」, 『어문연구』 98, 어문연구학회, 2018, 189~215쪽 참조.

10 ‘민란’이라는 용어는 지배층의 시각이 반영된 표현으로, 당대의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응한 피지배층의 항쟁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용어가 지닌 함의를 염두에 두면서, 원문에 근거하여 ‘민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임술민란기에 대해서는, 망원한국사연구실, 『1862년 농민항쟁』, 동녘, 1988; 김용선, 『韓國近代農業史研究. 1: 農業改革論 農業政策(Ⅰ)』 1, 지식산업사, 2004(新訂増補版); 배항섭·손병규, 『임술민란과 19세기 동아시아 민중운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송찬섭, 「1862년 농민항쟁과 소통의 정책」, 『한국사연구』 161, 한국사연구회, 2013 등 참조.

11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강혜중은 당시 작성된 대책(對策), 상소(上疏), 의(議), 설(說) 등 약 100편의 작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정책의 글쓰기

1 권진욱, 「雲養 金允植의 碑誌類 산문 연구」, 『동양고전연구』 84, 동양고전학회, 2021, 60쪽.

2 김윤식 사후 이루어진 평가와 ‘사회장’의 추진 및 반대 과정의 발생한 논쟁의 양상은, 공론장에서 그가 차지했던 위상과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준다. 자세한 내용은, 임경석, 「운양 김윤식의 죽음을 대하는 두 개의 시각」, 『역사와 현실』 57, 한국역사연구회, 2007; 김현주, 「김윤식 사회장 사건의 정치문화적 의미: ‘사회’와 ‘여론’을 둘러싼 수사적 투쟁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3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참조.

3 「雲養先生の長逝를悼하노라」, 『동아일보』, 1922.1.23, 3면.

4 “그 傾世文章에 이르러서는 李朝掉尾의 館閣巨匠으로 世의 定評이 잇슬뿐 아니라 그 博學通識이 漢學界의 當代泰斗로 海의 内外가 함께 崇敬하였었다.” 洪承耆, 「雲養集을 읽고」, 『매일신보』, 1936.7.8, 1면.

5 김윤식의 사상과 정치적 활동에 관련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성배, 「19세기 조선의 유교와 근대국제정치: 운양 김윤식의 경우」, 『국제정치논총』 47,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김성배, 「유교적 사유와 근대 국제정치의 상상력: 구한말 김윤식의 유교적 근대 수용」, 창비, 2009; 김용태, 「애국계몽기 雲養 金允植의 사상과 활동」, 『한문학회』 22, 우리한문학회, 2010; 황재문, 「雲養 金允植의 中國 認識: 領選使 활동 시기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15, 고전문화한문학회, 2013; 백승철, 「운양 김윤식의 국제 정세인식과 외교론」, 『열상고전연구』 42, 열상고전연구회, 2014 등.

6 정민, 「雲養 金允植의 貫道論과 歷代文評」, 『조선후기 고문론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윤호진, 「金允植의 「八家涉筆(其二)」-柳文 研究」, 김도련 편, 『한국고문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1998; 황재문, 「雲養 金允

공론 형성의 글쓰기 지형 검토 과정에서 시무소의 사례로 주요 상소문이 논의되었으며,¹² 전반적인 산문 작품 연구의 일부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¹³ 이러한 선행 연구는 김윤식의 주요 주의류 작품의 글쓰기가 지닌 변별적 특질을 밝히는 유의미한 성과를 제시하였지만, 문학적 관점에서 주의류 산문 전반을 본격적으로 조망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윤식이 남긴 글에는 역대 인물의 주의류 산문에 대한 논평도 다수 확인되므로, 이것을 김윤식의 작품과 유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윤식의 문장론을 바탕으로 주의류 산문의 서술 양상을 검토하여, 글쓰기를 통해 구현된 김윤식의 현실 인식과 문학세계를 심화 고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김윤식의 문장론과 주의류 산문에 대한 인식

2.1. 관각문인의 면모와 ‘경세지문(經世之文)’에 대한 시각

『운양집』은 김윤식이 간직해 온 원고를 모아 1914년 전집 약간 권을 만든 이후, 3년이 지난 1917년 문인과 후생들이 다시 간행할 것을 도모하여 중간된 것이라고 전한다.¹⁴ 1914년에 강설산관(絳雪山館)에서 석판으로 16권

8책 230질을 초간하였으며 이듬해에 일본으로부터 제국학사원상(帝國學士院賞)을 받았다. 『매일신보』 1915년 4월 15일 자 3면에는 수상 소식과 함께 문집을 소개하는 기사가 큰 비중으로 실려 있다.¹⁵ 이후 『운양집』은 1917년 신문관(新文館)에서 연활자(鉛活字) 15권 5책으로 간행되었다. 중간본은 초간본의 문집 체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권수(卷首)에 문인 이빈승(李斌承)이 지은 「약전(略傳)」, 스에마쓰 겐초(末松謙澄, 1855~1920) 등이 지은 중간제사(重刊題辭) 7편, 여규형과 윤희구(尹喜求, 1867~1926)가 각각 지은 중간후서(重刊後序) 및 중간서(重刊序) 등을 수록하고 약간 편의 시문을 증보하였으며, 권말에 정만조와 김택영의 발문(跋文)을 수록하였다.¹⁶ 스에마쓰 겐초는 여규형, 윤희구 등과 경학원 활동 중에 교유한 바 있으며, 김윤식이 제국학사원상 수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⁷

김윤식은 1913년에 작성한 자서(自序)에서, 자신의 글을 손수 교감하여 총 16권으로 엮었으며 시간순으로 편차하였다고 밝히면서, 문집의 글이 삶의 이력과 정치적



〈그림 1〉 『매일신보』 1915년 4월 15일 기사에 실린 김윤식과 『운양집』의 사진

양상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김윤식의 삼정책 안팎에 나타난 인식과 책제 인용 양상, 전정에 대한 서술적 특징 등을 다른 인물들의 작품과 비교 검토한 바 있다. 이는 다른 작품들과 변별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논한 것으로, 전반적인 주의류 산문의 맥락과 문장론의 구현 양상의 측면에서 김윤식의 삼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강혜중, 「壬戌(1862)년 三政救弊論의 형성 양상과 성격 고찰」, 연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참조.

12 강혜중, 「19세기 公論 형성의 글쓰기 지형 검토: 문집 소재 奏議類 및 論辨類 산문의 時務論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45, 한국한문고전학회, 2022.

13 연민희, 앞의 논문 2019.

14 金允植, 『雲養集』, 「重刊金雲養先生文集後序」[呂圭亨]; 「雲養先生集重刊序」[尹喜求].

15 『매일신보』의 인터뷰 기사에는 『운양집』이 어릴 적 스승에게 수학할 때부터 근년까지 지은 시와 문장 등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중간에 그 자료를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榮譽있는 老子爵을 訪 誼」, 『매일신보』 1915년 4월 15일, 3면.

16 『운양속집(雲養續集)』은 1930년 원집에서 산삭(刪削)된 내용과 이후의 시문(詩文)을 모아 편집 교정하여 연활자 4권 2책으로 간행된 것으로, 원집과 같이 창작 연대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저본인 한국문집총간본은 중간(重刊)된 원집과 그 이후에 간행된 속집의 합본이다. 『운양집』의 간행 과정과 편집 체제에 대해서는, 이지양, 「해제」, 『국역 운양집』, 2013, 한국고전종합DB; 연민희, 앞의 논문, 2019, 21~22쪽을 참조하여 서술한 것이다.

17 김용태, 「김윤식과 스에마쓰 겐초의 시문 수창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42, 열상고전연구회, 2014, 92쪽.

부침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역사성을 지녔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남조(南朝) 양(梁)의 왕균(王筠), 북송(北宋)의 양억(楊億)이 관직명으로 문집명을 삼고, 남송(南宋)의 양만리(楊萬里)가 관직명으로 시집명을 삼았던 사실을 열거하는 한편, 안록산의 난을 당하여 유랑하며 전란의 참상과 왕조의 흥망성쇠를 담아낸 두보(杜甫)의 시가 ‘시사(詩史)’라고 평가받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자신의 문집에 의미를 부여한다.¹⁸ 특히, 자서와 중간후서에는 김윤식의 관각문인(館閣文人)으로서의 면모가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① 나는 30세에 음직으로 관직에 나아갔고, 40세에 갈옷을 벗었다. 조정에 있을 때 빼어난 절조가 없었고 처세함에 우환이 많았다. 안팎으로 부침하고 호수와 바다를 표류한 수십 년 동안, 한 곳에 도착하면 곧 붓을 들어 기록하였다. 안에 있을 때는 명광전(明光殿)에서 초안을 잡았고, 밖에 있을 때는 사신의 여정을 기록하였다. 때론 분을 느껴 표현하기도 하고, 때론 무료하여 짓기도 하였으며, 때론 유람을 기록하기도 하고, 때론 수창(酬唱)에 응해 짓기도 하였지만, 요컨대 국가의 성대함을 올릴 만한 훌륭한 글도 대단한 책도 없다. 간직해봤자 무익하고 버리자니 차마 그럴 수 없어 뭉땅 먼지 깐 상자 속에 던져두었다.¹⁹

② 운양 선생은 넓은 도와 곧은 절개를 지니고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사신의 임무를 담당하고 외무아문의 독판(督辦)을 지냈으며, 내·외직을 두루 거쳐 암랑(巖廊)에 이르렀다. 무릇 한 시대의 고문전책(高文典策), 조명(詔命), 자독(咨牘) 등, 천하의 대세와 안위·득실에 관련된 글들

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그러나 웅장한 기세로 한번 붓을 휘두르면 마치 물을 뿌려 완성하는 것처럼 전혀 고민하며 짓지 않았으니, 장구에 국한되어 있는 선비나 글 잘한다고 이름난 사람이 오로지 다듬는 데 전념하는 것과는 달랐다. 옆에서 보는 사람은 혹시 엉성하고 대충일까 염려했지만, 자연히 이치에 들어맞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고, 도가 있는 곳에 문장 역시 따랐으니, 그가 지은 문장은 도의 해타(咳唾)와 서여(緒餘)가 밖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었다.²⁰

①과 ②는 각각 김윤식의 자서와 여규형이 지은 중간후서이다. 김윤식은 자신이 내직에 있을 때 어제(御製)를 대찬(代撰)하였고, 사신 직을 수행하면서 기록을 담당하였던 사실을 밝혀놓았다(①). ‘어제대찬’을 빗대며 언급한 명광전(明光殿)은 한대(漢代) 궁전의 이름으로, “명광전에서 초안 잡으면 사람들 부러워했던만[明光起草人所羨], 폐병이 났으니 어느 때가 되어야 조회에 나갈까? [肺病幾時朝日邊]”라는 두보의 시 「십이월 일일(十二月一日) 3수」의 구절에 출처를 둔 것이다. 여규형은 김윤식의 관력을 언급하며 조정의 정책, 왕명, 외교 사안 등 국정 전반과 관련된 글이 모두 김윤식의 손에서 나왔다고 평하였는데(②), 『운양집』 권9에는 ‘어제대찬’으로 분류된 총 30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 문집에 부기된 정보인 수록되지 않은 작품 수까지 고려하면 총 97편을 지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김윤식의 문집에는 19세기 국내외의 주요 정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서 활동하며, 문장가로 널리 명망을 떨쳤던 모습이 확인된다.

‘관각문인’에게는 상황에 따라 능숙하게 문체를 구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시무’에 대한 식견이 요구된

18 金允植, 『雲養集』, 「自序」, 한국문집총간 328, 224쪽.

19 위의 글. “余生三十出蔭途, 四十釋褐, 立朝無奇節, 處世多憂患, 浮沈內外, 漂泊湖海數十年, 所至輒有筆墨紀述. 在內則明光起草, 在外則皇華紀程, 或感憤而發, 或無聊而作, 或紀遊覽, 或出酬應. 要之, 無高文大冊可以鳴國家之盛者, 存之無益, 棄之不忍, 并投之塵箱中.” 이하 『운양집』의 원문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의 『국역 운양집』을 참조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한 것이다.

20 金允植, 『雲養集』, 「重刊金雲養先生文集」後序[呂圭亨], 한국문집총간 328, 230쪽. “雲養先生, 以弘道直節, 晚登科第, 專對使命, 督辦外交, 歷敷內外, 致位巖廊. 一時之高文、典策、詔命、咨牘, 凡事關天下大勢、安危得失者, 皆出其手. 而汪洋一筆, 如散水之成, 初不經意, 有異於章句局儒、操觚名家之專治焉. 旁觀者或慮其疎略, 而自然中理, 無所不該. 道之所在, 文亦隨之. 其爲文, 乃道之咳唾、緒餘, 著見於外者耳.”

다. 김윤식의 스승인 박규수와 유신환은 모두 당대의 시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으며,²¹ 이는 김윤식에게도 발견되는 면모이다. 박규수는 임술년(1862) 삼정이정청(三政釐正廳)의 설치와 공론 수렴을 제안하였으며,²² 유신환은 1862년 이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철종의 구언에 응할 수는 없었지만, 「시무편(時務篇)」²³과 같은 작품에서 삼정과 관련한 경세론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김윤식이 지은 『봉서집(鳳棲集)』 발문에는, 스승 유신환이 세간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경세제민(經世濟民)에 마음을 두었으며, 그의 경세론이 ‘당세지용(當世之用)’에 적합한 것이었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기록해 놓았다.

근세의 유자들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고상하다고 여겨서 임야에 숨어 살았는데, 선생은 벼슬하신 분이므로,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고상하다고 여기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여, 홀로 도성에 나아가 도(道)를 주창하였다. 이미 도를 자임하고 또 천하의 중요한 일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으니, 만인이 헐뜯어도 변하지 않았으며, 평생토록 운수가 나빠도 걱정하지 않았다. 자신이 벼슬을 하지 않을 때라도 개연히 항상 세상을 구제할 뜻을 품어, 삼정의 이로움과 폐단, 돈과 곡식의 성쇠, 호구의 증감, 관방(關防)의 험이(險易) 등을 마음을 다하여 강구하지 않은 바가 없었으니 모두 당세에 쓸 수 있는 조치였다.²⁴

21 노대환, 「19세기 중엽 俞莘煥 學派의 學風과 現實 改革論」, 『한국학보』 72, 일지사, 1993 참조.

22 김명호는 박규수가 환정 개혁과 이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주장한 당사자이지만, 정작 자신의 개혁안을 문자로 남기지 않았는데, 이는 진주 안핵사 활동과 관련하여 식직된 후 자중하며 지내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박규수와 주위 인물들의 삼정 구제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542-553쪽 참조.

23 俞莘煥, 『鳳棲集』 卷5, 「時務篇」, 한국문집총간 312, 85쪽.

24 金允植, 『雲養集』 卷11, 「鳳棲先生文集」跋【辛亥】, 한국문집총간 328, 424쪽. “近世儒者, 以不出爲高, 遯于林野, 先生仕者也, 不屑以不出爲高, 獨倡道於輦轂之下. 既以道爲己任, 又以天下之重爲己任, 萬人毀之而不變也, 終身陋窮而不憫也. 雖身居布韋, 慨然常懷濟世之志, 三政利弊, 金穀消長, 戶口增耗, 關防險易, 無不悉心講究, 皆可以措諸當世之用.”

위의 인용문은 두 가지 지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시무를 논하는 일이나 출사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하였으나, 유신환은 자신의 ‘출처(出處)’와 관계 없이 부세 체제와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출위논정(出位論政)’의 문제²⁵에 있어서 김윤식이 보이는 유연한 태도가 스승 유신환에게서 확인된다는 점이다. 유신환이 지은 「시무편」²⁶의 모두(冒頭)에는 본격적인 내용 전개 이전에, 서응순(徐應淳, 1824~1880), 박홍수(朴洪壽, 1824~1879), 윤병익(尹秉益, 1824~?)과 함께 한 ‘시무’ 담론의 현장을 글의 일부로 구성하여 시무 발화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밝혔는데, 김윤식 역시 육용정(陸用鼎, 1843~1917)의 문집에 붙인 「의전기술서(宜田記述序)」²⁷에 이러한 취지의 서술을 포함시켰다.²⁸

다음으로, 이러한 김윤식의 경세론이 문장론과 결합하여 공론 매체로서의 글쓰기로 구현되는 양상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윤식은 유신환과 그 스승인 홍석주(洪奭周, 1774~1842), 김매순(金邁淳, 1776~1840)의 문장에 대해 고평하였다. 유신환의 문장에 대해서는, 기준이 엄정하고, 짜임새가 정밀하여 작가의 법도와 궤범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진부한 말을 버리고 근세의 말을 구한 것으로, 이는 홍석주와 김매순에게 각각 순후함과 준일함을 습득하고 스스로 일가를 이룬 것이라고 평하였다.²⁹ 홍석주와 김매순은 김윤식이 논하는 역대 문장가 중에서 근세의 작가로 손꼽힌다. 홍석주의 문장은 법도를 넘지 않고, 여유롭고 전아하며 격동시키면서도 상하게 하지 않는 ‘치세의

25 『논어』, 「태백」에 “不在其位, 不謨其政.”이라고 하였다.

26 俞莘煥, 『鳳棲集』 卷5, 「時務篇」, 한국문집총간 312, 85쪽.

27 金允植, 『雲養集』 卷10, 「宜田記述序」, 한국문집총간 312, 395쪽.

28 유신환과 김윤식의 ‘출위논정’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강혜중, 앞의 논문, 2022, 127~130쪽 참조.

29 金允植, 『雲養集』 卷11, 「鳳棲先生文集」跋【辛亥】, 한국문집총간 328, 424쪽. “其文尺度謹嚴, 裁翦精密, 不出乎作家軌範, 而務去陳言, 求之近世, 得乎淵泉之醇深, 參以臺山之雋逸, 衆美畢備, 自成一家.”

문장[治世之文]’으로, 김매순의 글은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정수를 융합하여 일가를 이룬 것으로, 얽매이지 않는 초탈한 풍격을 지녔다고 하였다.³⁰ 세 인물에 대한 평을 종합해 본다면, 김윤식은 문장 규범에 부합하면서도 진부하지 않으며, 문장 전범의 장점을 취하면서 구속되지 않는 자신만의 미학적 풍격을 갖춘 문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도 논하였듯이, 김윤식의 문장론에는 ‘문’의 효용과 가치를 인정하는 관점이 드러난다. 1866년 김윤식이 정대번(丁大燮, 1833~?)과 왕복한 편지에서는, 주(主)와 객(客)이 되는 리(理)와 기(氣)의 관계로 문장의 내용과 표현의 관계를 설정하고,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와 운용 원리에 대해 논한다. 리(理)가 도달하면 표현[辭]이 따르고, 표현이 따르면 기(氣)가 갖추어지며, 기가 갖추어지면 광채가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김윤식은 역대 문장 변천의 흐름 속에서 이전 시기의 결점을 없앤 고문가로 한유(韓愈)를 꼽는다. 한유 이후 당송팔대가의 문장이 척도가 되었으나, 후대의 문장 수준이 이전 시대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주관 없이[內無所主]’ 그저 전범을 따르는 데 급급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문장이 오랜 기간 ‘도술(道術)’ 및 ‘정사(政事)’와 분리되어 왔다고 진단한다.³¹ 이는 전통적인 도문론의 당위론적 외피, 즉 ‘도’와 ‘문’의 불가분성을 전제하는 언설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도

술’에 상응하는 또 다른 대상으로 ‘정사’를 언급한 것으로,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성에 바탕을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장이 담아내야 하는 요소로서 ‘도술’과 함께 ‘정사’를 언급한 것은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지점이다. 관련하여 김택영이 지은 『운양집』 발문에 보이는 김윤식의 문장 지향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뛰어난데도 더욱 뛰어나기를 구하고, 이미 기이한데도 더욱 기이하기를 구하여, 심지어 법도를 위배하고, 도리를 배반하는 데까지 이르러도 그치지 않으니, 이것이 고금의 재사(才士) 가운데 문장으로 세상에 과시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공경대인(公卿大人)의 경세(經世)의 문장이라면 그렇지 않다. 말이 분명하면 그치고 뜻이 흡족하면 그친다. 오직 실제 일의 유익함을 따질 뿐 부화(浮華)의 무익함은 따지지 않는다. 마치 거친 베옷과 두터운 비단 관이 비록 사람을 움직일 만한 문채(文采)는 없지만 조정에 앉아 정사를 내기에 충분한 것과 같이, 운양 김 공의 문장이 이러하다. 그런데 공은 평상시 박연암(朴燕巖) 선생의 문장을 매우 좋아했는데, 이 문장은 동방 사천 년 역사상 제일 기이하고 위대한 문장이다. 그가 좋아하는 바를 살펴보면, 그 가슴 속에 따로 기이한 취미를 축적해 둔 바가 있음을 알만하다.³²

김택영은 문장의 실질이 아닌 분식(粉飾)에만 힘쓰는 세태를 비판하며, 김윤식의 문장을 ‘공경대인의 경세의 문장[經世之文]’에 빗대고, 그의 문장에서 발견되는 실용적 면모를 높이 평가하였다. 즉 ‘경세제민의 문장’은 화

30 金允植, 『雲養集』 卷4, 「答人論青邱文章源流」, 한국문집총간 328, 627쪽. “近世作家, 推淵泉、臺山。淵泉之文, 步趨有度, 不越乎矩矱之外, 而紆餘春容, 感激而不傷, 洵爲治世之文。臺山之文, 掇百氏之英, 融爲一家, 俯仰有致, 風神雋然。繼此以往, 寥寥未有聞也。”

31 金允植, 『雲養集』 卷11, 「答丁小耘論文書【丙寅】」, 한국문집총간 328, 430쪽. “夫論文之道, 理爲主而辭爲賓, 理到而辭從, 辭從而氣備, 氣備而光彩自著。……近古名家, 厭避其宇下, 乃欲自立赤幟, 駕宋邁唐, 取六經諸子中希語、僻字, 掇拾而成文, 自以爲眞復古之文也。後之人, 頗知其非, 多不悅服, 然終未能遽捨, 時時剽竊爲己用, 規免塵腐平澹之譏, 乃曰: ‘此取古人之長也’, 又曰: ‘尋古人之正傳, 得古人之骨髓。’ 此不過內無所主, 依違苟容, 求合人之一時之眼, 無終朝之計者也。由是觀之, 世愈下而文益卑, 後之人能指摘前人之失, 而攷其所著, 又不及前人遠甚。此無他, 文章之與道術相離, 政事相分, 孤行而特立者久矣。”

32 金允植, 『雲養集』, 「《雲養集》跋[金澤榮]」, 한국문집총간 328, 519쪽. “已工而加求工, 已奇而加求奇, 甚至入於僞繩、背矩、畔經、乖理而不知止, 此古今才士以文夸世者之所爲也。若公卿大人經世之文則不然。詞明則止, 意洽則止, 只問實事之有益, 而不問浮華之無益。如大布之衣、大帛之冠, 雖無動人之文采, 而可以坐朝廷出政事, 雲養金公之文是也。然公居恒酷好朴燕巖先生之文, 是文也, 東邦四千年第一奇偉之文也。觀其所好, 亦可知其胸中奇趣之別有所蘊矣。”

려한 문채(文彩)를 지니지는 않았지만,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을 담은 것이며, 이것이 김윤식 문장이 지닌 특징임을 밝힌 것이다. 또한 김택영은 박지원을 역대 최고의 문장가로 인정하며 김윤식이 그의 문장을 매우 좋아했다는 점을 거론하는데, 이는 김윤식 문장의 원인으로 박지원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윤식은 1902년 유배지인 지도의 둔곡(屯谷)에서 지은 『연암집(燕巖集)』 서문에서, 박지원을 문장의 병폐를 벗어난 유일한 인물로 꼽으며, 연암의 문장에는 윤색의 병폐가 없고, 얹매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절도가 있어서 후생이 배워서 도달할 수 없는 경지라고 고평하였다.³³ 특히 박지원의 글을 유희의 문장이 아닌 ‘경세제민의 문장[經濟之文]’이라고 규정하는데,³⁴ 이는 글의 실천적 효용성에 주목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김윤식은 서구의 문명과 전래의 학문적 성취의 접점을 탐색하며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고자 한다. 박지원의 문집에 수록된 주요 작품이 당대에 가장 중요시되는 ‘시무’의 학문과 합치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이러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애오려기(愛吾廬記)」, 「회우록서(會友錄序)」, 「논원도서(論原道書)」, 「명론(名論)」, 「농설(農說)」과 「북학의서(北學議序)」는, 김윤식을 통해 20세기의 문턱에서 근세의 ‘시무’ 담론이 담겨있는 작품으로 소개된다. ‘시무’에 대한 관심과 식견을 곧 나라의 안위와 결부된 문제로 바라보았던 김윤식에게, 당대의 현실은 사대부가 경세제민에 뜻을 두지 않아 국세가 날로 미약해지고 민생은 고달파지며, 서양인들에게 육경이 쓸데없는 책

이라는 의심을 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다.³⁵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김윤식에게 ‘경세지문’의 중요성을 더욱 깊게 인식하도록 만든 하나의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

2.2. 주의문(奏議文)에 대한 인식과 비평 양상

주의류 산문은 그 내용과 격식, 표현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문체 규범의 영향 하에 전개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정조는 ‘장주(章奏)’에 대한 당대의 문풍(文風)을 논하면서, 예사로운 차독(筭牘)에서도 정성을 기울이는 뜻이 없음을 지적하며, ‘창언(昌言)’과 ‘정론(正論)’을 위해서는 경건한 태도로 한 글자, 한 구절도 소홀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³⁶ 또한 최한기(崔漢綺, 1803~1877)는 주의문의 필수 구성 요소를 항목별로 편집한 『소차류찬(疏劄類纂)』에서, ‘장소주의(章疏奏議)’에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는 주장의 채택이나 전책 여부가 담기고, ‘장소주의’를 통해 신하가 품은 뜻을 펼치고 인주가 계책을 채택하는 일이 비롯되므로, 시무에 뜻이 있는 자는 강구하고 연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³⁷ 김윤식의 문집에는 이러한 주의류 산문에 대한 독서 기록과 비평, 작법과 독법에 대한 시각을 살필 수 있는 글이 적지 않게 확인된다.

김윤식이 『동감문초(東鑑文抄)』를 편찬하며 붙인 서문을 보면, 전대의 상주문(上奏文)이 문장의 모범이자 역사적 견문을 넓히는 자료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김윤식은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동국통감(東國通鑑)』에서 조(詔), 표(表), 주(奏), 지(識) 등을 가려 뽑으면서, 타국의

33 金允植, 『雲養集』卷4, 「答人論青邱文章源流」, 한국문집총간 328, 627쪽. “是以操觚之士, 未嘗有涵養研索之工, 而開口便談性命, 掇拾宋賢書牘, 以自潤其文, 此亦文之一病也. 能脫此病者, 其惟燕巖乎. 燕巖之文, 如天馬行空, 不施羈勒, 而自然中節. 此可謂文中之龍, 後生不可學得者也.”

34 金允植, 『雲養集』卷10, 「燕巖集序【壬寅○此下作屯谷時在】」, 한국문집총간 328, 399쪽. “……於是世之愛讀者甚多, 其知者以爲經濟之文, 其不知者以爲遊戲翰墨. ……今試考集中所言, 與今日最要, 最重之時務諸學, 不謀相合者, 略舉其槩以證之.”

35 위의 글, 400쪽. “士大夫不留心於經濟, 以致國勢日卑, 民生困瘁, 至使西人疑六經爲無用之書, 可勝歎哉! 何不讀先生此集? 可知今日致此之由, 非六經之咎也.”

36 正祖, 『弘齋全書』, 「文學【二】」. “讀其文而可以論其世. 予未知近日文風之如何, 而試以章奏間攷之, 昌言正論, 雖不可責之人人, 尋常劄牘, 亦未見稍加之意. 使後世讀之, 當以今之世謂何歟? 告君之際, 必曰薰沐, 古之君子, 不言則已, 言則必不放過於一字一句矣. 【直提學臣李秉模丙午錄】”

37 崔漢綺, 『疏劄類纂』, 「序」, 『增補 明南樓叢書 1』, 동아시아학술원 大東文化研究院, 2002, 389쪽.

문장일지라도 고르게 채록하여 문장을 상고하고 역사적 사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³⁸ 「어떤 이가 우리나라 문장의 원류를 논한 것에 답함[答人論青邱文章源流]」에는 역대 문장 비평 중에 주의류가 거론된다. 김윤식은 신라와 고려 때 명신(名臣)의 장주(章奏)나 비문은 종종 후대인이 미칠 수 없는 양한(兩漢)의 기풍과 맞³⁹이 있으며, 남구만(南九萬, 1629~1711)과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의 주의를 ‘명창(明鬯)’하여, 이들이 당시 관각의 인재로 불렸다고 하였다.⁴⁰ 문집에는 몇몇 군데에서 해당 평어가 확인되는데, 그중에서 유신환의 문하에서 함께 교유 하였던 유만주(兪萬柱, 1832~?)의 글에 대해서도 ‘조리가 명창하다[條理明鬯]’는 평어를 붙였다. 유만주의 문집 서문에서는, 장편의 사직소에서 시무 7조를 진술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삼정에 관한 책문은 옛 제도를 계승하고 폐단을 바로잡는 의로움을 주장하였으며, 시무를 논한 것은 내정을 닦고 외적을 물리치는 설을 창도하였는데, ‘조리가 명창하고 주관을 견지하는 순일한 유자의 말’이라고 하였다.⁴¹ 또한 「영선사로 의주를 건널 때 올린 소[以領選使渡灣時疏]」에서는 국방 강화책으로 절용의 필요

성을 역설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한 명대(明代) 호세녕(胡世寧)의 상소에 대해 ‘매우 적절하고 명백[剴切明白]’하다고 고평하면서 당시 그 주장의 채납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후세의 귀감 되기에는 족하다고 하였다.⁴² 김니(金杞, 1540~1621)의 『유당집(柳塘集)』에 붙인 서문에는, 대책문 중 무산보(茂山堡)를 방비하자는 구절에 나타난 탁견을 강통(江統)의 「사용론(徙戎論)」에 견주었다.⁴³ 이로 본다면 김윤식은 주장의 타당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의 정합성이 글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가를 주의류 산문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송팔대가의 문장을 논한 「팔가섭필(八家涉筆)」에는 소순(蘇洵), 소식(蘇軾),王安石 등의 상서(上書), 차자(劄子), 표(表) 등의 상주문에 대한 논평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문장 비평 양상이 확인된다. 그중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김윤식은 소식(蘇軾)의 서(書)·소(疏)·차(劄)·장(狀)은 고금에 겨룰만한 것이 드물다고 하여 고평하였으며,⁴⁴ 소순(蘇洵)의 「상인종 황제서(上仁宗皇帝書)」에 대해서는, 벼슬하지 않은 미천한 신분으로서 만승의 천자에게도 굽히지 않아 전국(戰國) 시대 처사의 풍모가 있고, 하늘의 덕과 왕도(王道)를 진술하여 임금의 심술(心術)을 바르게 한 연후에 당세의 시무를 폭넓게 이야기하는 본말을 갖추었다고 평하였다. 아울러 이해에 관한 진술은 매우 명쾌하여 말이 많아도 질리지 않으니 문장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였다.⁴⁵

38 金允植, 『雲養集』 卷5, 「《東鑑文鈔》序」, 한국문집총간 328, 395쪽. “遂鈔徐四佳所輯《東國通鑑》中詔·表·奏·議諸篇。雖他國之文, 苟載是書者, 均入採錄, 名曰《東鑑文鈔》。不第文章之可考, 其事實亦可得以領會矣。因以著我東文教源流之槩, 文章盛衰之變, 弁諸卷首, 以示同志之博聞好古者。”

39 김윤식의 글에는 양한의 문풍에 대한 적극적인 비평을 찾기는 어려운데, 한대(漢代) 인물 중 사마상여(司馬相如)가 문장의 으뜸으로 꼽혔으며, 가의(賈誼)·동중서(董仲舒)·사마천(司馬遷)·유항(劉向)·양웅(揚雄) 등은 학술이나 정사로 거론되다가 후세에 그 글이 추존되어 문장으로 주목받았다고 하였다. 金允植, 『雲養集』 卷11, 「答丁小耘論文書【丙寅】」, 한국문집총간 328, 430쪽.

40 위의 글, 626쪽. “至麗初猶然, 而若名臣章奏及碑版之作, 往往有兩漢氣味, 非後世可及……藥泉、明谷, 奏議明鬯, 時稱館閣之才。”

41 金允植, 『雲養集』 卷10, 「《白渠集》序」, 한국문집총간 328, 405쪽. “當上疏辭職, 附陳時務七條, 纏纏數千言, 皆切中機宜……策三政, 則主仍舊補弊之義。籌時務, 則倡內修外攘之說, 條理明鬯, 秉執堅確, 醇乎儒者之言也。” 현전하는 유만주의 『白渠先生詩抄』(서울대 규장각 소장)에는 서문은 없고, 3冊에 「擬疏」, 「請刊籍兼陳時務疏」, 「斥和疏」가, 4冊에 「策」이라는 제목으로 삼정책이 수록되어 있다. 유만주의 삼정책은 당시 삼하(三下)로 뵈었다. 입적 정보에 대해서는 강혜중, 앞의 논문, 2018, 214쪽 참조.

42 金允植, 『雲養集』 卷12, 「敬書文貞公(丁卯亂後兩西事宜疏)後」, 한국문집총간 328, 451쪽. “竊伏念此疏所陳, 剴切明白, 未知見用於當時, 而亦足爲後世之龜鑑矣。”

43 金允植, 『雲養集』 卷10, 「《柳塘集》序【柳塘名杞, 姓金氏, 籍全州, 居定平, 官參判, 贈戶判】」, 한국문집총간 328, 406쪽. “其對策中有‘茂山堡勿令胡, 夷雜處以防後患’之語, 其卓見遠識, 不讓於江統《徙戎之論》也。”

44 金允植, 『雲養集』 卷15, 「八家涉筆下」, 한국문집총간 328, 504쪽. “蘇長公書疏劄狀, 古今罕比。”

45 위의 글, 498쪽. “余觀老蘇《上仁宗書》, 以布韋之賤, 不屈於萬乘, 有戰國處士之風, 秦、漢以來, 未之多見。意謂開卷, 首陳天德王道, 以端人主之心術, 然後縱言當世之務, 有本有末, 今不然……然所陳

「팔가섭필」에서 첫 번째로 논하는 한유의 「불골표(佛骨表)」에 대한 기록은 주의문에 대한 기능과 서술 전략에 대한 김윤식의 시각을 보여준다. 「불골표」는 부처의 사리를 궁중으로 들여오려는 것의 부당함을 헌종(憲宗)에게 극렬히 간언한 것으로, 헌종의 노여움을 산 한유는 겨우 사형을 면하고 조주 자사(潮州刺史)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김윤식은 이 글을 두고 임금에게 간언하여 기쁨과 노여움을 얻지 못하는 자는 날마다 수십 장의 글을 올리더라도 무익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⁴⁶ 한유의 직언에 담긴 진심이 헌종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측면에 주목한 것이다.

또한 김윤식은 문집에 자신의 9대조가 되는 김육(金堉, 1580~1658)의 상소문 4편에 대한 상세한 견해가 담긴 서후(書後)를 수록하였다. 「삼가 문정공의 <정묘호란 뒤 양서(兩西)의 사의(事宜)를 논한 소> 뒤에 쓰다[敬書文貞公<丁卯亂後兩西事宜疏>後]」는 김육이 1627년 6월에 김육이 작성한 상소⁴⁷에 붙인 것으로, 김윤식은 전란 이후에 무리하게 성과를 쌓거나 군대를 양성하는 일보다 안민(安民)에 힘써야 한다는 김육의 주장이 모두 절실한 큰 계책으로 시무에 달관한 논의라며 높이 평가하였다.⁴⁸ 다른 2편의 글은 김육이 주장했던 대표적 정책인 대동법(大同法)과 관련된 것이다. 김육의 문집에는 1650년에 올린 우의정 사직소가 총 8편이나 실려 있는데, 김윤식은 이 중에서 「제이소(第二疏)」⁴⁹와 마지막 「제팔소(第八疏)」⁵⁰에 대한 서후를 문집에 수록하였다. 1650년에 올린

일련의 사직소는 대동법 실시를 반대한 김집(金集, 1574~1656)과의 대립 국면에서 작성된 것이다.⁵¹ 「삼가 문정공의 <우의정을 사직하는 두 번째 소> 뒤에 쓰다[敬書文貞公<辭右議政第二疏>後]」와 「삼가 문정공의 <우의정을 사임하는 여덟 번째 소> 뒤에 쓰다[敬書文貞公<辭右議政第八疏>後]」에는, 전란 이후 ‘병사를 쉬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는 설[息兵安民之說]’이 천하의 형세와 병가(兵家)에 대한 식견에서 나온 시의적절한 주장이었다는 점, 대동법 시행이 곧 안민의 방도였으므로 반대를 무릅쓰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김윤식은 여러 번 소를 올려 물러나기를 청한 것은 정세가 곤란해져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옛 대신들의 의리로 처신한 일이며, 거듭 망설이고 그리워하며 차마 임금을 잊지 못하는 ‘충애의 정성[忠愛之誠]’이 지면에 넘쳐났다고 하여, 김육의 진정성과 행위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서술을 덧붙이고 있다.⁵²

그중에서 「삼가 문정공의 <보양관을 사임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온 후 자품을 높인 데 대한 소> 뒤에 쓰다[敬書文貞公<辭輔養官東還後加資疏>後]」는 상소가 갖춘 덕목을 세세히 논하는 과정에서 김윤식의 주의류 산문의 작법과 독법을 살필 수 있는 지점이 확인된다.

① 후손 윤식(允植)이 삼가 살피건대, 문정공(文貞公)께서는 평소 온축한 포부를 실행하고자 하는 바가 매우 많았지만, 자주 장주(章奏)에 올렸던 것으로는 대동(大同)·전폐(錢幣)·차승(車乘), 세 가지가 으뜸이었다. 대개 이 세 가지가 당시에 가장 절실한 급선무였고, 또한 때를 헤아려 보아도 실행할 만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헛된 말을 지어내 후세에 빛나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당시 임금께서 채택하지 않으신 것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으셨을

利害處忖明快, 多而不厭, 自是文中之龍耳.”

46 金允植, 『雲養集』 卷14, 「八家涉筆上【並引○庚午○汕北老人 申耆永頭評】」, 한국문집총간 328, 337~338쪽. “凡納說於其君, 而不得君之喜怒者, 雖日上數十章, 亦無益也.”

47 金堉, 『潛谷遺稿』 卷4, 「論兩西事宜疏【丁卯六月】」, 한국문집총간 86, 71~76쪽.

48 金允植, 『雲養集』 卷12, 「敬書文貞公<丁卯亂後兩西事宜疏>後」, 한국문집총간 328, 451쪽. “此皆石畫切實, 達觀時務之論也.”

49 金堉, 『潛谷遺稿』 卷4, 「辭右議政疏【正月初十日】」, 한국문집총간 86, 84~85쪽.

50 金堉, 『潛谷遺稿』 卷4, 「辭右議政疏【正月二十四日】」, 한국문집총간 86, 88~89쪽.

51 김성애, 「해제」, 『잡곡집』, 1999, 한국고전종합DB 참조.

52 金允植, 『雲養集』 卷12, 「敬書<文貞公辭右議政第二疏>後」, 한국문집총간 328, 452쪽. “及其情勢艱艱, 無可施爲, 則乃毅然以古大臣之義處之, 屢疏請去. 然猶復低迴眷戀, 不忍忘君, 忠愛之誠.”

것이다.⁵³

② 공의 주의(奏議)를 읽어 보면, “수레를 사용하고 전폐를 사용하고 점포를 설치하는 것의 편리함은 모모(某某) 수신(守臣)이 언급하였고, 사신이 수레를 타는 것의 편리함은 신이 스스로 생각하였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찌 그리 충후(忠厚)하고 주도면밀하신가? 수레를 사용하고, 전폐를 사용하고, 점포를 설치하는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 구애됨이 없었으며, 일을 잘 알고 편리하게 하는 장점이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신 것이다. 사신이 수레를 타는 편리함은 높은 벼슬아치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감당하신 것이다. 명예는 남에게 미루고 원망은 자신이 짊어지며, 공로는 사양하고 허물은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들과 더불어 나랏일 구제하려 하셨으니, 지극한 정성이 사람을 감동시킨다. 무릇 대인군자의 마음 씀씀이는 진실로 이와 같아야 마땅한 것이다.⁵⁴

김윤식이 서후를 붙인 김육의 상소는 1664년에 작성된 것으로, 심양(瀋陽)에 머물고 있던 소현세자의 아들인 원손과 함께 돌아온 후 가자(加資)되자 이를 사양하며 올린 것인데, 청나라를 왕복한 과정에서 목도한 현장을 화두로 수레와 전폐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히 수레가 아닌 말을 이동 수단으로 택함으로써 불필요한 경비가 소요되고 나아가 말이 부족하여 파발이 수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⁵⁵

김윤식은 이 상소의 정당성을 논하면서 김육이 반복하여 주장한 대동(大同)·전폐(錢幣)·차승(車乘)이 당대의 급무이며, 당시 실현 가능한 정책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김육의 상소는 뛰어난 관료적 판단과 충심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허명(虛名)을 추구하거나 왕의 실정(失政)을 드러내려는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①). 또한 김윤식은 상소가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장의 출처를 세심하게 나누어 서술한 면모에 주목하였다.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주장이라고 밝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이에게 돌리면서 공로를 사양하고 허물을 나누는 태도야말로, 사람을 감동하게 만드는 대인군자의 품모이며, 주의문을 작성할 때 유념할 덕목이라는 것이다(②).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윤식의 주의문 비평은, 문장의 풍격, 논지 전개와 수사법, 경세론, 작자에 대한 인물 비평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김윤식의 주의류 산문을 개관하고, 이러한 김윤식의 문장론과 주의문에 대한 인식이 실제 작품과 조응하는 양상 등을 살펴본다.

3. 주의류 산문의 서술적 특징과 경세론의 전개 양상

3.1. 주의류 산문의 개관

김윤식의 『운양집』에는 상소 10편, 장계 2편, 대책 1편이 실려 있다. 문집에 협주로 부기한 바에 따르면, 상소는 19편 중 10편을, 대책은 2편 중 1편을 수록한 것이다. 이 글들은 김윤식 자신이 엮은 문집에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글 안팎에 나타난 김윤식의 인식을 고찰하기에 더욱 유의미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⁵⁶ 아래의 표는 문체

53 金允植, 『雲養集』 卷12, 「敬書(文貞公辭輔養官東還後加資疏)後」, 한국문집총간 328, 452쪽. “後孫允植謹按, 文貞公平日蘊抱, 所欲行之者甚多, 而其屢登於章奏者, 大同、錢幣、車乘三者爲最. 蓋是三者, 爲當日最切之急務, 而抑又量時可行故也. 不然不爲空言以耀後, 且顯時君之不能用也.”

54 위의 글, 같은 곳. “讀公奏議, 有云‘用車、用錢、設店之便, 某某守臣言之, 使臣乘車之便則臣所自思’, 何其忠厚而周至也? 蓋用車、用錢、設店之事, 無礙於時人, 而有識事興利之美, 故推以與人. 使臣乘車之便, 貴卿之所厭聞也, 故以身當之. 推譽而擔怨, 讓功而分過, 于以與之共濟國事, 至誠動人. 夫大人君子之用心, 固宜若是歟!”

55 金堉, 『潛谷遺稿』 卷4, 「辭輔養官東還後加資疏【甲申八月】」, 한국문집총간 86, 78~80쪽.

56 박선수(朴瑄壽)가 수집 교정한 가정초고(家藏草稿)를 바탕으로 김윤식이 간행한 박규수의 『환재집(煥齋集)』 ‘소차(疏劄)’ 항목에는, “사직하며 올린

별로 수록된 작품의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며, 작품의 제목 옆에 밝힌 작성 시기나 제출 여부는 표 우측에 따로 기재하였다.

〈표 1〉『운양집』에 수록된 김윤식의 주의를 산문⁵⁷

연번	제목	수록 권수	작성 시기 및 정보
1	삼정책(三政策)	卷7	1862년
2	이조 참의를 사직하는 소[辭吏曹參議疏]	卷8	1881년 9월 【辛巳九月】
3	영선사로 이주를 건널 때 올린 소 [以領選使渡灣時疏]	卷8	1881년 10월 【辛巳十月】
4	자헌대부에 초승되는 것을 사양하는 소 [辭超陞資憲疏]	卷8	1883년 8월 【癸未八月】
5	포량의 이획을 금지해 달라고 청하는 소 [乞止砲糧移劃疏]	卷8	1883년 【癸未】
6	강화 유수, 외무 협판, 기기국 총판을 사직하는 소 [辭江華留守, 外務協辦, 機器局總辦疏]	卷8	1884년 3월 【甲申三月】
7	병조 판서와 외무 독판을 사직하는 소 [辭兵曹判書外務督辦疏]	卷8	1885년 1월 【乙酉正月】
8	자열소(自列疏)	卷8	1886년 가을 【丙戌秋】
9	재소(再疏)	卷8	1886년
10	삼소(三疏)	卷8	1886년
11	제도국 총재에 임명된 후의 자열사직소 [制度局總裁除拜後自列辭職疏]	卷8	1907년 6월 【隆熙元年丁未六月】
12	황해도 암행 어사 장계 [海西繡啓]	卷8	1876년 별단은 수록하지 않음 【丙子○別單不錄】
13	광주의 환폐를 바로잡기를 청하는 장계 [請矯揉廣州還弊狀啓]	卷8	1886년 3월 올리지 않음 【丙戌三月○未呈】

〈표 1〉을 살펴보면, 상소 총 10편 중 사직을 청하거나 직임을 사양하는 상소가 4편, 자신의 죄를 논하며 해명하는 자열소가 3편, 두 내용을 함께 상주한 상소가 1편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글은 1862년에 작성한 「삼정책(三政策)」(1)이며, 1907년 6월에 올린 「제도국 총재에 임명된 후의 자열사직소[制度局總裁除拜後自列辭職疏]」(11)가 가장 뒤에 작성한 것이다.

의례적인 소는 모두 신지 않았다[辭職例疏皆不錄].”는 기록이 있어, 작품 선별에 반영된 기준의 일면을 짐작할 수 있다. 『환재집』의 간행 정보에 대해서는, 김진옥, 「해제」, 『환재집』, 1995, 한국고전종합DB 참조.

⁵⁷ 본고에서는 왕에게 상주(上奏)하는 ‘글’이라는 의미에서 『운양집』에 수록된 주의를 산문으로 상소, 대책, 장계를 포함하였다. 경우에 따라 주의를 선집에는 소대(召對)의 기록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삼정책」은 임술년 철종의 구언에 응하여,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에 대한 폐단을 교혁할 방안을 제시한 대책이다. 당시 2품 이상은 헌의(獻議)하고 3품 이하의 관료와 유생은 시책(試策)을 통하여 의견을 진달하도록 하였다. 김윤식이 이 글을 작성할 당시는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진사시 급제 이전의 유생 신분이었다. 김윤식의 「삼정책」은 의례적인 구언에 대한 상찬이나 투식어구를 지양하고, 책제(策題)의 방향에 호응하는 답변이 아닌 시무를 중심으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양상을 보이며, 책제를 여러 번 나누어 인용하며 조목별로 정책적 사안을 적극적으로 논구한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논한다.

1876년에 작성한 「황해도 암행 어사 장계[海西繡啓]」(12)에는 결부(結賦)를 제대로 거두기 어려운 황해도의 척박한 토질과 중국 사신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많이 감당하는 등의 지역적 특수성에 맞추어 부세(賦稅)를 거두는 상황과 당면한 문제점을 보고한 글이다. 즉, 대전(代錢) 상납을 가능하게 하고, 결가(結價)를 항식(恒式)으로 정하여 징수 중에 발생하는 폐단을 막았으며, 환자곡(還子穀)은 두고 모곡(耗穀)만을 거두는 와환(臥還)으로 환곡을 대부분 운영하고, 호포(戶布)로 신역(身役)을 균등하게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삼정(三政)의 병폐에 따른 민의 부담은 줄어든다고 되었으나, 사신의 잦은 왕래와 흥작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 궁핍한 지경에 처한 지역 상황의 개선 방안을 올리는 글이다. 문집에는 별단이 함께 수록되지 않았는데, 『승정원일기』에는 건가(乾價) 마련의 폐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도의 지방(支放)에 대한 일정한 규례를 만들고, 경저리(京邸吏)와 영저리(營邸吏)가 사재를 친족에게 징수하는 폐습을 엄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별단 내용을 전교로 윤택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⁵⁸

「광주의 환폐를 바로잡기를 청하는 장계[請矯揉廣州還弊狀啓]

⁵⁸ 『승정원일기』 1876년(고종 13) 10월 26일.

弊狀啓」(13) 역시 부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상황 보고와 구폐 방안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문집 기록에는 조정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 이 글에 나타난 광주의 환곡 운영의 문제점은, 결미(結米), 신미(身米), 각 도의 환자곡(還上穀), 모곡(耗穀) 등이 돈으로 상납되는 상황에서 쌀값이 상정가(詳定價)보다 15~6배 상승하자, 급료 등을 본색(本色)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세미(稅米)가 아닌 환곡미(還穀米)를 취하여 사용하는 폐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田稅)를 토지의 결(結)에 따라 쌀로 거두되, 일괄적으로 본영의 옛 제도 및 다른 고을의 가장 가벼운 규례에 따를 것을 건의한다.

「이조 참의를 사직하는 소[辭吏曹參議疏]」(2)는 자질 부족의 이유로 이조 참의를 사양하는 상소이지만, 조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여러 직책을 제수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는 글이다. 1880년(고종 17) 4월 순천 부사(順天府使)로 부임하였던 일과 호조 참의 및 이조 참의 직책을 연이어 받았던 일, 그리고 장차 영선사의 직분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려는 마음가짐 등이 서술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에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는 비답이 확인된다.⁵⁹ 같은 해에 작성된 「영선사로 의주를 건널 때 올린 소[以領選使渡灣時疏]」(3)는 영선사로 파견된 김윤식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기 전 작성한 것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절용을 통한 재용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글이다. 『승정원일기』에는 상소의 내용이 절실하고 타당하니, 마땅히 유념하겠다는 비답이 확인된다.⁶⁰

「자헌대부에 초승되는 것을 사양하는 소[辭超陞資憲疏]」(4)는 1883년 정경(正卿)에 특서(特敍)되어 이를 간곡히 사양하는 상소이다. 1882년 임오군란 발생 시, 김윤식은 청군의 파병을 요청하여 상황을 수습하고, 이듬

해인 1883년 기기국 총판(機器局總辦)을 맡았으며, 정2품인 자헌대부에 가자(加資)되었다. 「이조 참의를 사직하는 소」(2)에서도 이조의 중책을 맡을 역량이 되지 않음에도 전례 없이 ‘초진(超遷)’되어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는데, 시종일관 겸사(謙辭)로써 직분을 사양하는 타당함을 간곡히 서술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조정의 깊은 신임과 파격적인 대우가 이루어졌음이 드러난다.

같은 해에 작성된 「포량의 이획을 금지해 달라고 청하는 소[乞止砲糧移劃疏]」(5)는 김윤식이 강화 유수로 부임하였을 때 포량(砲糧), 즉 강화(江華) 진무영(鎭撫營)의 군수(軍需)로 징수하던 세미(稅米)를 다른 사용처로 옮겨가는 것을 금지할 것을 건의하는 상소이다. 김윤식은 군사요충지로서 강화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자세히 논하면서 이 지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1884년에 올린 「강화 유수, 외무 협판, 기기국 총판을 사직하는 소[辭江華留守, 外務協辦, 機器局總辦疏]」(6)는 외서(外署)의 요직과 기국(機局)의 업무를 함께 감당하기 어렵고, 강화에서 진영(鎭營)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으므로 본직과 겸직을 면직시켜 줄 것을 청하는 상소이다. 이어지는 「병조 판서와 외무 독판을 사직하는 소[辭兵曹判書, 外務督辦疏]」(7)는 앞선 상소를 올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병조 판서를 맡게 되고, 한 달 남짓 만에 또 독판(督辦)으로 승진하였으므로, 자신이 맡고 있는 여러 직임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청하는 글이다. 『승정원일기』에는 사양하지 말라는 고종의 비답이 각각 확인된다.⁶¹

한편, 「자열소(自列疏)」(8), 「재소(再疏)」(9), 「삼소(三疏)」(10)는 모두 1886년에 작성된 자열소로, 1884년 갑신정변에 참여하였던 박영효(朴泳孝, 1861~1939)의 아버지 박원양(朴元陽, 1804~1884)을 장사 지낸 일을 해명하기 위해 올린 상소이다. 이는 3장 3절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59 『승정원일기』 1881년(고종 18) 9월 19일.

60 『승정원일기』 1881년(고종 18) 11월 4일.

61 『승정원일기』 1885년(고종 22) 1월 4일.

첫 번째와 두 번째 상소는 『승정원일기』에 비답과 함께 기록되어 있으나,⁶² 세 번째 상소는 문집에서만 확인된다. 1907년에 지은 「제도국 총재에 임명된 후의 자열사직소」(卍)는, 10년 동안의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 제도국 총재를 제수받고 직명을 거두어 주기를 청하는 상소이다. 김윤식은 김홍집(金弘集, 1842~1896) 내각에서 외무아문 대신(外務衙門大臣)을 지냈는데, 1895년 을미사변이 발생하고 이듬해 아관파천이 일어난 이후 면직되었으며,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하여 탄핵을 받아 1897년 12월 제주에 종신 징배토록 결정되었다. 그 후 1907년 7월, 송병준(宋秉駿, 1858~1925)을 비롯한 일진회(一進會)의 청원과 조정의 70세 이상 고령자의 석방 조치에 따라 해배되었다.

이상 문집에 수록된 주의류 산문은, 김윤식이 역임했던 관직에 대한 정보와 관료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동시에, 정치적 공박에 대응하는 해명의 성격을 지녔다는 특징이 있다. 다수의 상소에는 내외직을 역임하며 정책을 맡았던 정황과 국정 운영의 방향 및 정책에 대해 지녔던 생각이 나타나 있다. 또한 대책과 장계는 삼정의 변통 방안을 제시하며, 자신이 파악한 지역 현실에 대해 쫓진하게 전달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서술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3.2. 격절한 수사(修辭)와 시무(時務) 중심 구폐론(敕弊論)의 전개

김윤식의 주의류 산문에는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며 피력한 경세론이 담겨있다. 그중에서 「삼정책」(卍), 「황해도 암행 어사 장계」(卍), 「포량의 이획을 금지해 달라고 청하는 소」(卍), 「광주의 환폐를 바로잡기를 청하는 장계」(卍)는, 1862년부터 1886년까지 삼정 운영과 관련

한 폐단을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변통 방안을 제시하는 김윤식의 구폐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삼정책」은 1862년 당시 유생 신분이었던 김윤식이 3품 이하의 관료와 유생의 의견 수렴 방식인 시책에 응하여 작성한 것이다. 삼정책은 특수한 상황에서 작성된 시무책으로, 전형적인 과문(科文)과는 달리 삼정의 폐단을 교혁할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취지에 따른 것으로, 김윤식의 주의류 산문의 글쓰기 방식을 특징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1862년 발생한 임술민란의 수습 과정에서 설치된 삼정이정청(三政釐正廳)은 당시 안핵사(按覈使)였던 스승 박규수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김윤식은 조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그에 대한 여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62년 2월 단성에서 촉발된 민란이 삼남 일대로 더욱 확대되자, 조정에서는 안핵사, 선무사(宣撫使) 등을 민란이 일어난 지역으로 파견하여 수습하고자 하였다. 이때 박규수는 담당 기관을 설치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을 건의하였고,⁶³ 당해 5월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이후,⁶⁴ 6월에는 철종이 조야의 관료와 유생에게 구폐책을 묻는 구언을 내려 2품 이상의 관료는 헌의(獻議)하고 3품 이하의 관료 및 유생들은 친책(親策)⁶⁵에 응하도록 하였다. 책제(策題)가 제시되면 집으로 돌아가 열흘 동안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며,⁶⁶ 책제를 등서하여 지방에도 내려보냈다.⁶⁷ 이에 응한 글은 삼정이정청에서 고시(考試)하여

63 朴珪壽, 『瘞齋集』 卷6, 「請設局釐整還餉疏」, 한국문집총간 312, 404~405쪽.

64 『철종실록』 1862년(철종 13) 5월 26일.

65 서사증의 『문체명변』 권34 「策」에는 천자(天子)와 유사(有司)가 각각 묻고 이에 답하는 책문을 '制策'과 '試策'으로 구분하였는데, 『철종실록』의 1862년 6월 12일 기사에는 '親策', 6월 10일 기사에 수록된 전교에는 '試策'이라는 표현이 보이며, 김윤식의 「삼정책」에는 '제책'이 사용되었다.

66 『철종실록』 1862년(철종 13) 6월 10일.

67 『철종실록』 1862년(철종 13) 6월 12일.

62 두 편의 상소와 비답은 각각 『승정원일기』 1886년(고종 23) 7월 24일, 27일 자 기사에서 확인된다.

100인의 입격자를 선발하였는데, 김윤식은 입격자 명단에 들지 않았다. 문집에 수록된 김윤식의 「삼정책」 모두(冒頭)에는 시책이 시행된 경위가 협주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⁶⁸

조두순(趙斗淳, 1796~1870)이 대제(代製)한 철종의 책제(策題)⁶⁹에는 개량(改量)을 위한 인재 및 비용 마련 방안, 군정의 사괄(查括)에 대한 방법, 불가피한 취모보용(取耗補用)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환곡을 탕감할 경우의 급대(給代) 방안 등을 묻고 있는데, 중국의 전고가 아닌 아조(我朝)에 집중하여 제도의 연혁과 득실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학식을 과시하며 글쓰기의 기예를 겨루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점 등을 언급하여, 조선의 현실에 절실한 구폐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책제를 수용하는 방식은 작자에 따라 저마다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김윤식은 구언을 통한 공론 수렴의 실질적인 효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한편, 총 8부분에 해당하는 책제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구상과는 다른 책제의 시각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의견을 개진한다. 이는 전책(殿策)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책제에 자신의 논지를 대립적으로 부각시키는 데에도 유용한 서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⁷⁰ 따라서 2장에서 검토한 김윤식의 주의류 산문에 대한 인식과 비평 양상에서 확인한 바를 바탕으로, 논지 전개 방식과 전략적 수사 등이 글쓰기에 구현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왕의 구언은 애민 정신의 발로로 이루어진 국왕의 통치 행위 중 하나로서, 특히 임술년의 구언은 삼정의 폐단을 반드시 바로잡고자 ‘떨나무를 줍는 천한 이들[芻蕘]’에게까지 널리 의견을 수렴한 철종의 치적으로 열거

되는 일이었다.⁷¹ 그러나 김윤식의 「삼정책」 허두(虛頭)에는 아래와 같이 왕의 성덕(聖德)을 기리는 칭양의 서술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조처의 실효성에 회의감을 품은 백성의 마음을 반전적으로 드러낸다.

① 신은 삼가 아뢰입니다. 엿드려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지 13년 동안 수공(垂拱)으로 묵묵히 다스리시며 음성과 안색을 크게 내지 않으셨으니, 백성들은 그 허물을 들은 바가 없고 내외의 여러 신하들도 모두 변함없는 덕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덕음(德音)으로 밝게 하문하시고 애통한 마음의 교지를 내려 교구(矯誣)할 방책을 구하셨습니다. 막히고 가려진 것을 크게 열고 널리 듣고 두루 살피시니, 보고 듣는 이들 가운데 누구인들 감격하여 갈고 닦아 대양(對揚)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백성들 또한 마땅히 기뻐 춤추며, 이로부터 비로소 지극한 치세(治世)를 보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② 막상 제책(制策)이 내리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하인이나 아녀자들까지도 문구(文具)일 뿐이라고 지적하지 않는 이가 없고, 식견이 있는 자들은 도리어 이로 인해 백성들에게 믿음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먹을 것을 가지고 배고파 우는 아이를 꺾어 놓고 바로 주지 않아 더욱 화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국가의 형세가 심히 쇠약해졌으니, 대경장(大更張)을 행하고자 하다가 끝내 군색하게 되어 도리어 생각지도 못한 우환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신은 이에 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거듭 근심과 의혹이 더해집니다. ③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평소 강건하시나, 결단에 미흡한 바가 있고 백성을 위하는 뜻에 미답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전하의 성명(聖明)하심으로, 경솔하게 이러한 큰일을 거행하고 앓은 채로 사망의 민심을 잃으셔서 안 됩니다. ④ 만약 그렇지 않고 스스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어, 위로는 기강을 엄숙하

68 金允植, 『雲養集』 卷7, 「三政策」, 한국문집총간 328, 337쪽. “【哲宗大王御極十有三年, 因湖嶺民擾, 設釐正廳, 議矯揉三政之術. 六月十二日, 上親臨設策, 令搢紳儒生咸造在庭, 以十日爲限, 呈券于成均館】”

69 『列聖御製』 卷104, 「三政採弊策題(壬戌)」, 장서각 소장본(K4-13).

70 자세한 내용은, 강혜중, 앞의 논문, 2018, 89~91쪽 참조.

71 趙斗淳, 『心庵遺稿』 卷19, 「哲宗大王上尊號玉冊文」, 한국문집총간 307, 398쪽. “……遇水旱而捐帑藏, 溝壑轉爲衽席, 三政必矯則芻蕘之博詢, 五刑維欽而貪墨之不貸……”

고 맑게 세워 아래로는 은택이 두루 미치게 하고, 훌륭한 계책을 인용하여 뜻이 흔들리거나 빼앗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도록 하신다면, 이는 종묘사직의 무궁한 복이요, 백성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때일 것입니다. ⑤ 태조와 태종께서 실로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니, 이러한 일을 거행하면서 어찌 조심스럽게 그 안위(安危)의 갈림길을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⁷²

위의 인용 단락은 왕의 무위지치(無爲之治)의 덕⁷³과 구언에 대한 칭양(①), 이와 대조되는 책제에 대한 백성들의 부정적 반응(②), 왕의 통치 행위의 문제점과 시정방안에 대한 간언(③, ④), 삼정 교혁을 신중히 할 필요성 제기(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과 ②는 각각 구언의 행위와 책제에 나타난 정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연이어 대비시키는 억양법이 사용되고 있다. ③은 수신자인 왕을 향한 비판적인 발화의 수위가 고조되는 대목이다. ‘건강(乾剛)’과 ‘성명(聖明)’을 갖춘 군주에게 기대되는 올바른 판단과 결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솔한 거행으로 민심을 잃어서는 안 되므로, 기강을 바로잡고 훌륭한 계책을 채용할 것을 촉구한다(④). 이와 같은 억양법을 활용한 격절한 수사는 글의 초입에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환기시키며 곧바로 이어지는

책제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전제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⁷⁴

김윤식은 ②에서 책제의 문제점을 두 측면에서 지적한다. 첫째, 조정의 교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전달되지 못하였기에 민심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이다. 공론을 수렴하는 일은 그 자체로 ‘민란’ 국면의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적 상황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둘째, 국가의 형세가 ‘대경장(大更張)’을 시행하기에 불리하므로 무리한 정책 추진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예측하지 못한 우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식이 ‘경장’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이후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결부(結負)의 법은 고려 말부터 명확하지 못하여 조선 시대의 왕들이 이를 계승하되 경장을 중시하였다거나,⁷⁵ 삼정의 법에 미진한 바가 있는 것이 자신이 경장하고자 하는 까닭⁷⁶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삼정구폐(三政救弊)’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경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규수는 경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급박하게 추진되어 성과가 없다면 오히려 백성들이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⁷⁷ 이는 ②에서 보이는 김윤

72 金允植, 『雲養集』卷7, 「三政策」, 한국문집총간 328, 337-338쪽. “臣謹對, 伏念殿下御極十有三年, 垂拱淵默, 不大聲色, 百姓未聞其過, 而內外群臣咸仰一德. 一朝發德音, 垂明問, 降哀痛之旨, 求矯揉之策. 大開擁蔽, 博聽兼觀, 凡在瞻聆, 孰不感激磨厲, 思所以對揚之術? 而其小民亦宜歡欣蹈舞, 以爲自此庶見至治之世矣. 乃者制策之下, 聞者雖卑隸婦孺, 莫不指以爲文具, 其識者反憂以此失信於民. 譬猶持食物以誘饑啼之兒, 而不卽予哺, 愈致憤鬱. 且今日國家之勢, 委靡已甚, 而欲行大更張之事, 慮其終或致蹇踣而有意外之患. 臣於是不能慨恨, 而重之以憂惑焉. 意殿下平日乾剛, 有所欠斷, 而爲民之志, 有所未孚歟? 若然則以殿下之聖明, 必不率爾作此大舉, 坐失四方之心. 若不然, 而自度可以有爲, 綱紀肅清於上, 而需澤得以下究, 引用長策, 不撓不奪, 終始如一, 則此宗社無疆之福, 而兆民再生之秋也. 太祖、太宗實鑑在上, 於此舉, 豈不兢兢焉察其安危之際哉?”

73 『서경』『무성』에 “신의를 돈독히 하고 의리를 밝히며 덕을 숭상하고 공에 보답한다면, 옷자락을 늘어뜨린 채 팔짱만 끼고 있어도 천하가 다스려진다 [攄信明義 崇德報功 垂拱而天下治].”라고 하였다.

74 글의 도입부인 허두의 작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관심은 과책 참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정책은 전형적인 과문은 아니지만, 허두의 기능적 측면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최식, 「策文의 특징과 글쓰기: 『策文準的』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이상욱, 「조선후기 과책(科策) 참고서의 작법 요령: 『책형(策型)』과 『변려화조(駢麗華藻)』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72, 열상고전연구회, 2020 참조.

75 金允植, 『雲養集』卷7, 「三政策」, 한국문집총간 328, 338쪽. “所謂結負之法, 自麗季而不明, 本朝列聖相承, 重於更張.”

76 위의 글, 340쪽. “夫三政之法, 固有未盡, 此臣所以欲更張者也.”

77 이는 박규수가 윤종의(尹宗儀, 1805~1886)에게 보낸 편지와 김윤식이 이에 덧붙인 기록, 김윤식이 지은 양헌수(梁憲洙, 1816~1888)의 행장 등에서 확인된다. 朴珪壽, 『臚齋集』卷9, 「與尹士淵」, 한국문집총간 312, 460쪽; 金允植, 『雲養集』卷13, 「正憲大夫工曹判書兼知義禁府、三軍府訓練院事、五衛都總府都總管梁公行狀」, 한국문집총간 328, 468-469쪽.

식의 시각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삼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즉, 김윤식은 책제의 첫머리인 전부(田賦), 군적(軍籍), 환곡(還穀)을 정사의 큰 기틀이라고 전제하는 문장⁷⁸을 복독(伏讀)한 후, 삼정을 그저 동일 선상에서 거론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전제를 근본에 두고 군정과 환정을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⁷⁹ 이는 곧 위의 인용문에서 책제를 형식적[文具]이라고 비판한 ②번의 서술이 구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김윤식은 삼정을 본말 구도로 설정한 후 개량을 통한 전결(田結)을 확보함으로써, 군정과 환정의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 출발점으로 여러 부조리가 발생하는 당시의 양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한전(限田)과 균전(均田)의 ‘균민지산(均民之產)’의 취지를 살리되 현실에 적용이 가능한 방전법(方田法)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책제에서 묻고 있는 개량을 위한 재정 및 인재 확보 방안을 상세히 설명한다. 김윤식은 특별히 양전에 적합한 인재가 없다는 사실을 근심하는 것은 소극적 태도라고 지적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태학에 불러들여 규정과 실무를 익히도록 하고 이를 때때로 평가하도록 제안한다. 또한 이들을 감령(監領)으로 임명한 후 토지 측량이 반영된 도장(圖帳)의 말미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상벌의 근거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양전에 소요되는 비용 마련 방안 역시 구체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도출한다. 즉, 중읍(中邑)의 양전의 비용을 산정하고 팔도의 비용의 추계하며, 환총(還總)을 따져본 후 모곡 이외에

매 섬마다 임시로 한 말을 더 거둘 것을 제안한다.⁸⁰

김윤식은 특히 개량 후 정세(正稅) 중에서 양병 비용을 조달하고 영원히 군포를 덜어준다면 고제(古制)에 거의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⁸¹ 「십육사의(十六私議)」〈양병(養兵)〉에는, 군대 양성을 위한 최선의 제도로 부병제(府兵制)를, 차선으로는 둔전제(屯田制)로 꼽았으며, 모병제(募兵制)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음이 확인된다.⁸² 병농일치에 기반한 부병제나 군량미 확보에 수월한 둔전제를 양병에 적합한 제도로 여긴 것으로, 「삼정책」의 논의는 이러한 고제의 취지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변통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책(聖策)에 ‘전고를 널리 찾아’부터 ‘변하면 통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함에 마땅함을 얻지 못했다면 앎에 미진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마음을 비우시고 두루 의견을 물으시어, 문자로 올리지 못한 말까지 받아들이시니, 구언의 도가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삼정의 허물을 집어내어 여러 간사한 자들과 늙고 추한 자들이 실정을 숨기지 못하게 하시니, 물정을 환하게 비추는 눈이 밝으시다 하겠습니다. 밤낮없이 걱정하고 애쓰시며 교혁하고 변통할 방도에 전심을 다하시니, 백성을 사랑하는 뜻이 간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은 오히려 의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엄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고, 구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찌 전하께서 이처럼 근심하고 애쓰시는 마음을 알겠습니까?⁸³

78 『列聖御製』卷104, 「三政救弊策題」, 장서각 소장본(K4-13), 79쪽. “王若曰: ‘國之大政, 厥目有三, 曰田賦也, 曰軍籍也, 曰還穀也. 三政之設, 初豈非經國理民之大柄歟?’”

79 金允植, 『雲養集』卷7, 「三政策」, 한국문집총간 328, 337쪽. “聖策有曰: ‘國之大政止理民之大柄歟’. 臣竊以爲凡事有綱、有目、有經、有緯, 田賦爲之綱, 而軍還卽其目也. 田賦爲之經, 而軍還卽其緯也. 今者, 廢綱而理目, 舉緯而亂經, 其勢至於本末俱病, 莫可究詰. 殿下, 猶以三政並舉, 欲苟存其名, 而採之於經、緯、綱、目之外, 此臣所以悶鬱愴怳而不知所對也.”

80 金允植, 『雲養集』卷7, 「三政策」, 한국문집총간 328, 339~340쪽.

81 위의 글, 338쪽. “古者寓兵於農, 田無二賦, 如今改量之後, 調養兵之費於正稅之中, 而永蠲軍布, 則其制稍近於古, 而可以召天地之和矣.”

82 金允植, 『雲養集』卷7, 「十六私議」, 한국문집총간 328, 348쪽.

83 金允植, 『雲養集』卷7, 「三政策」, 한국문집총간 328, 339쪽. “聖策有‘廣訪典故止變則通之義也’. 臣聞, ‘非知之難, 行之惟難.’ 行之, 而未

위의 인용문에서 복독하는 책제에서는, 국초에 삼정이 설치된 취지 및 폐단이 생겨난 양상을 열거하며 교혁 변통의 의지를 드러낸다. 책제에서는 호세가의 겸병에 의한 경계의 문란, 피역에 의한 군적의 문란, 문서 농단에 의한 환곡의 문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⁸⁴ 이는 고질적인 병폐로 거론되어 온 일이었다. 김윤식은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서경』 「열명」의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행함에 마땅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 널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구언의 덕과 교혁 변통에 전심을 다하는 애민 정신을 상찬한다. 그러나 곧바로 없앨 것을 없애는 위엄과 구휼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즉, ‘法久弊生’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왕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김윤식의 「삼정책」은 비교적 과감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택하였다. 김윤식의 글에서 보이는 격절한 수사와 시무 중심 구폐론의 전개 양상은, 김윤식의 문장론과 주 의문 비평에서 확인되는 경세지문에 대한 관점, 가감 없는 직언과 요연한 논지 전개에 대한 고평 등에 나타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윤식이 주의문을 단순히 의례적인 군신 간의 소통 도구가 아닌, 수신자인 왕 혹은 글을 접하는 독자군의 마음을 움직여 실천으로 이끄는 매체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得其當者, 則知有所未盡也. 今殿下虛心延訪, 容受於文字之外, 求言之道, 可謂至矣. 摘三政之疵, 使群奸、老醜, 莫掩情狀, 燭物之鑑, 可謂明矣. 宵旰憂勞, 惓惓於矯革變通之方, 愛民之志, 可謂切矣. 雖然, 臣猶有所疑焉. 既知其不可不祛, 而威有所未加, 既知其不可不恤, 而惠有所未究. 百姓蚩蠢, 安知殿下之心如此憂勤哉?”

84 『列聖御製』 卷104, 「三政採弊策題【壬戌】」, 장서각 소장본(K4-13). “予非欲廣訪典故, 困人於觚墨之間, 使爲誇詡淹較藝術之意也. 不詳悉源委, 無以設矯揉之方, 故畧舉其槩而詢之. 以予所識, 先爲披露, 國初三政, 本是爲國爲民而設, 田不收賦, 軍不衛邦, 穀不議賑, 而能成國者, 未之有也. 國不成國, 民將疇依, 然則三政不理, 其責在於君國子民之地. 法久弊生, 終古已然, 今日三政, 可謂弊到劇處矣. 豪勢兼並而經界紊矣, 狡黠逃竄而尺籍虛矣. 奸猾舞弄而釋法壞矣. 民不堪命, 國將隨傾, 猶復佞泄, 不思矯革, 豈窮則變, 變則通之義也.”

3.3. 시세(時勢)와 정리(情理)의 논리를 통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문집에 실린 김윤식의 주 의류 산문에는 관직을 두루 거치며 중책을 맡았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유능한 관료로서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며 조정의 신임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다. 특히 김윤식의 글에서는 기민한 ‘시세(時勢)’ 파악을 근거로 한 정책적 판단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서술이 두드러진다. 19세기 병인양요, 신미양요,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조선이 제국 열강의 힘의 논리를 점차 체감하고, 이에 대응하는 외교 노선의 다양한 분기 선상에 서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가 맡은 내외직은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요동치던 시기, 이에 대한 대응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그중에서 「영선사로 의주를 건널 때 올리는 소」(③)⁸⁵는, 김윤식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되는 글이다. 이 글은, 영선사로 파견되어 국경을 넘기 전 의주에서 상소를 올리게 된 동기, 외세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성, 국방 강화를 위한 재용 마련의 당위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의 인용 단락은 이와 같은 김윤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전개된 대목이다.

① 우리나라는 수백 년 동안 태평성세를 누려 백성들이 병란을 보지 못하였기에, 일상을 편히 여기고 옛것을 지키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이는 사세(事勢)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아무 일 없던 때라면 괜찮겠지만, 마야흐로 지금은 우주의 기운이 크게 변하고 있습

85 강혜종은 19세기 공론 형성의 글쓰기 지형을 검토하면서, 이 상소문을 의례적이지 않은 시무소의 사례 중 하나로 논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 글을 김윤식의 주 의류 산문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자료로 주목하여, 서술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강혜종, 앞의 논문, 2022, 134~136쪽.

니다. 이역의 다른 종족은 『산해경(山海經)』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왕회(王會)」에도 그려져 있지 않은데, 그 종류 또한 하나가 아닙니다.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배를 몰아 합중연횡(合從連衡)하면서, 병력으로 자웅을 겨루고 법률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가득 메우고 바다로, 물으로 점차 가까워지니, 기미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형적도 이미 크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오히려 문호(門戶)를 걸어 잠근 채 보지 않고, 베개를 높이 베고서 편히 눕고자 한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⁸⁶

② 지금 재용은 고갈되었는데, 일은 끊임이 없습니다. 공사(公私)의 탕고는 곳곳이 텅 비어 있고, 거두어들이는 것은 끝이 없어, 민생은 날로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무언가를 시행하고자 해도 번번이 막혀, 절실한 효과는 보지 못하고 그저 인력과 비용만 드는 폐단만 더하였기에, 밖에서는 뜯소문이 일어나고 아래에서는 난(亂)의 싹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또한 형적으로 이미 드러난 것이지 그저 기미만 드러났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하니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재물을 쓰는 방도는, 부득이해서 쓰면 아무리 많아도 원망이 없지만, 그만둘 만한데 그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적어도 반드시 비방이 따릅니다. 무익한 비용을 줄여 모두 유익한 쓰임으로 돌리고, 급하지 않은 수요를 덜어내어 당장 급한 일을 전적으로 다스린다면, 사업은 일어나고 백성들의 비방은 잦아들며 난의 싹은 사라지고 복록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 요체는 사욕을 이기고 재물을 절약하여 쓰는 것일 뿐입니다.⁸⁷

①과 ②는 각각 외세의 동향과 국내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는 부분으로, 절용을 통한 자강책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가 되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①은 의주에서 국경인 압록강을 건너기 전 상소를 올린다는 사실을 밝힌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김윤식은 오랜 기간 전란을 겪지 않아 방비 태세가 느슨해진 것을 그동안의 ‘사세(事勢)’라고 규정짓고, 『산해경(山海經)』과 「왕회도(王會圖)」에서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외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사세’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영선사의 파견 취지가 바로 이러한 사세에 대한 왕의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는 서술로 연결된다. 이 때문에 왕명으로 ‘노자와 양식의 비용[資糧之費]’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무기 제조법을 익히기 위한 도제가 천진에 파견되었다는 것이다. 김윤식은 나아가 뜻밖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용을 준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②는 바로 이 문장에 이어지는 대목으로, 재용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고갈된 상황을 적나라하게 설명하여 심각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재용의 부적절한 사용은 민의 불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난(亂)의 시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극기절용[克己節用]’만이 해결 방안임을 주장한다.

위의 두 인용 단락에는 모두 ‘기미뿐만 아니라 형적이 드러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판단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당장 대응해야 하는 실체적 사안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양병을 위한 선행 요건으로, 호세녕의 상소를 상당 부분 인용하여 개진하는 절용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김윤식이 인용한 대목에는, 세수는 늘지 않았는데 지출은 증가하였고, 용비(冗費)로 지출되는 급료가 몇 배로 증가한 상황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호세녕이 자신의 주장

86 金允植, 『雲養集』 卷8, 「以領選使渡灣時疏」, 한국문집총간 328, 364쪽. “我國昇平數百年, 民不見兵, 安常守舊, 恬嬉成習. 此事勢之固然. 若在往日無事之時則可, 方今宇內氣運大變. 異域殊類, 《海經》之所不著, 《王會》之所不圖者, 其種不一. 各治兵駛船, 合從連衡, 以兵力相雄, 以法律相持. 彌滿天下, 水陸漸逼, 此非特幾微之見, 而形跡已大著矣. 當此之時, 猶欲閉戶不見, 高枕而安臥, 其可得乎?”

87 위의 글, 365쪽. “今則財用耗竭, 事不可已. 公私私藏, 所在空虛, 徵求無藝, 民生日瘁. 國家欲有施爲, 動輒窒碍, 未見急切之效, 祇增勞費之弊, 於是浮言興於外, 亂萌生於下. 此亦形跡之已著, 非特幾微之見而已也. 然則如之何而可也? 凡用財之道, 出於不得已, 雖多無怨, 於可已而不可已, 則雖少必謗. 減無益之費, 盡歸有益之用, 捐不急

之需, 專治當急之務, 則事業可興、民謗可息、亂萌可消、福祿可延. 其要不過克己節用而已.”

을 펼치며 인용한 육지(陸贄)의 말도 포함되어 있다. 김윤식은 상소의 본문에서 호세녕의 목소리를 빌려 자신의 의견을 대신 전달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호세녕을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대언(代言)’ 주체로 소환함으로써, 논리를 중층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집에 수록된 이 상소의 말미에는 상소를 올린 배경과 당시 주위의 반응 등을 회상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부기해 놓았다.

① 살펴보건대, 당시 고질적인 갖은 폐단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가장 심했던 것은 무거운 세금과 재정의 남용이었다. ② 나는 매번 상소를 올려 그 폐단을 통렬히 진술하고 싶었지만 한스럽게도 말할 통로가 없었다. 마침 영선사로 강을 건너게 되자 그 참에 무릅쓰고 이 상소를 올려 명나라 신하의 상소를 인용한 뒤 내 뜻을 덧붙여 진술하였다. ③ 나중에 들으니, 이 상소가 올라간 후 온 조정이 술렁이면서 온당한 말이 아니라고 하였다 한다. 자칭 식견 있다는 아무개 대관마저도 그러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아도 진실로 그 까닭을 모르겠다. ④ 얼마 안 되어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이것이 우리나라 어지러움의 시초였으니, 이 어찌 세금을 무겁게 거두고 재정을 남용하며 군정(軍情)을 구휼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 아니겠는가? 아! 탄식할 만하도다. 경인년(1890) 봄 영탑사(靈塔寺)에서 추가하여 기록한다.⁸⁸

위의 내용은, 상소 작성 경위를 밝힘으로써 당시 채납되지 못했던 자신의 주장이 결국에는 정당한 것이었음을

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자신의 상소가 당대의 급무를 주제로 삼은 타당한 논의였음을 피력하고(①), 그동안의 언로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영선사 파견을 계기로 상소를 올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힌다(②). ③은 상소를 올린 이후의 상황으로, 『승정원일기』에는 이 상소에 대해 유념하겠다는 통상적인 비답만이 확인되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는 당시 반대 여론이 거셌던 것을 알 수 있다. 김윤식은 같은 해에 지은 「십육사(十六私議)」〈광청(廣聽)〉에서도 이 상소를 언급하면서, ‘절용’ 한가지로 상소를 올렸는데 그 말이 몹시 간절하거나 지극하지 않았는데도 온 세상에서 시끄럽게 비난하면서 망언이라 여겼으며,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는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였는데, 그 까닭을 여전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⁸⁹ 인용 단락의 마지막 부분은 자신의 주장이 결국은 옳았음을 명백히 밝히는 대목이다(④). 당대의 시무를 논한 자신의 주장을 채납하지 않아, 결국 임오군란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시세의 구도와 흐름을 근거로 구체적인 시무를 논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1883년에 작성한 「포량의 이획을 금지해 달라고 청하는 소」(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김윤식이 강화 유수로 재임 시에 작성한 것으로, 강화에서 포량(砲糧)으로 쓰고 남아 있는 환자곡을 매년 충주로 옮기라는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논박한 글이다. 이 글의 서두에는 강화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① 강화라는 섬은 경강(京江)이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 잡은 수도의 문호(門戶)입니다. 먼 옛날부터 유사시에 반드시 다투는 땅이었으니, 지난 일을 가지고 살펴보건대 경성을 잃고서 강화를 보존한 일은 있지만 강화를 잃고서 경성을 보존한 일은 듣지 못했습니다. ② 당시는 아직 해

88 金允植, 『雲養集』卷7, 「十六私議」, 한국문집총간 328, 356쪽. “【按當時百弊膠固, 不可枚舉, 而最尤甚者, 厚斂而濫用也. 余每懷投進一疎, 痛陳其弊, 而恨無可言之階, 適以領選使渡江時, 冒進此疎, 援引明臣章奏, 附陳己意. 追聞, 疎上後, 舉朝譁然, 以爲非所當言, 至於自稱有識之某大官亦然. 余至今思之, 誠不知其何故也. 未幾有壬午軍變, 此爲我邦造亂之始, 豈非厚斂濫用不恤軍情之所致歟? 吁, 可歎也! 庚寅春, 在靈塔追記.”

89 金允植, 『雲養集』卷7, 「十六私議」, 한국문집총간 328, 356쪽. “余昔奉使赴津時, 上疏論節用一事. 其辭不甚切至, 而舉世譁然非之, 以爲妄言, 愛我者爲我惜之. 吾至今思之, 不得其故.”

로가 열리지 않고 배편이 편리하지 않아 수비의 요지가 해구(海口)에 있지 않았는데도 이와 같았습니다. ③ 하물며 지금은 각국 간의 교류가 한창이고 화륜선이 배 짜듯 교차하고 있으니, 만일 미세한 틈이라도 생긴다면 교활한 자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날렵한 화륜선에 예리한 화포를 장착하고서 곧장 경강 양쪽 언덕에 도달할 것입니다. 수비를 소홀히 했다가는 앉아서 구경만 한 채 어찌지 못하게 될 터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④ 예로부터 이름난 석학이 논의를 펼치며, 너나없이 강화는 적을 막는 중요한 곳이니 전력을 다해 증수해야 한다고 했던 데에는 반드시 그만한 뜻이 있었습니다.⁹⁰

김윤식은 먼저 강화가 수도의 문호로서,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상을 지닌 곳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미 강화가 위태로우면 곧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인식이 존재했다는 것이다(①). 하물며 이러한 인식은 강화 지역이 수비의 관문으로 당대만큼의 요지가 아닐 때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했는데(②), 각국의 교류가 한창이고 화륜선이 배를 짜듯 왕복하는 상황에서는 유사시 무력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더욱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③). 따라서 전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역대 석학들의 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인다(④). ③ 부분의 무기를 갖춘 화륜선에 대한 묘사는, 강화 해협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양요와 운요호[雲揚號] 사건 등이 연상되는 대목으로, 주장의 주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인용 단락에 이어 김윤식은, 인천 개항 이후 강화 지역을 소홀히 여기며 국방 강화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반박하며, 유사시에는 강화가 창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의 후반부에는 병인양요 이후 강화에 주둔하던 병사의 유지 비용을 포량과 삼세(蔘稅)로 충당한 사실과, 삼세를 이획한 후부터 재정이 고갈되어 각 관속 및 병정 등의 급료를 줄 수 없어, 병사를 줄였던 상황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군영을 추가 설치하여 옛 규모를 회복하고,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나, 상당량의 포량을 이획한다면 결국 천연 요새를 지킬 군사와 군량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결국 ‘주객지세(主客之勢), 즉 조선이 주가 되고 적이 객이 되는 형세를 잃게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⁹¹ ‘포량 이획의 부당함’을 주장한 이 상소는, 이처럼 서두에 시세 분석을 배치함으로써 후반부에 자신의 구상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한편, 문집에 수록된 후반부의 상소는 탄핵과 종신 유배, 해배를 거치는 기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정치적 공박에 대한 해명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 상소에서는 자열소나 사직소의 문법에 부합하는 곡절한 표현을 바탕으로 ‘정리’의 논리를 동원하는 서술 양상이 확인된다. 김윤식은 1882년에서 1884년에 걸친 시기에 통리아문 협판 겸 강화 유수로 재임하며 친청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1884년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위안스카이에게 출병을 요청하여 상황을 수습하였다.⁹² 일련의 과정에서 갑신정변에 참여하였던 박영효의 아버지인 박원양의 시신을 수습한 일은 김윤식과 대립하는 세력으로부터 탄핵을 받는 빌미가 된 주요 사건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1886년에 올린 자열소에는 정치적 위기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정리(情理)’의 논리로 대응한 양상이 확인된다. 세 편의 글 중 첫 번째 「자열소」는 박원양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낸 경위에 대한 대목에 『승정원기록』의 내용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함께 검토할

90 金允植, 『雲養集』 卷8, 「乞止砲糧移劃疏【癸未】」, 한국문집총간 328, 366쪽. “夫江華一島, 處京江入海之口, 爲國都門戶. 自上世以來, 有事則爲必爭之地, 以往事觀之, 失京城而保江華則有之矣, 失江華而保京城則未之聞也. 彼時海路未開, 舟楫不利, 戰守之要, 不在海口, 而猶尚如此. 況今交際倂午, 輪船如織, 萬一有微末之釁, 狡焉伺便, 扣輕輪架利砲, 直達京江兩岸. 守備疎虞, 坐視而莫可奈何, 豈不寒心? 自古名碩之論, 莫不以江華爲保障重地, 用專力而增修之, 意正有在.”

91 위의 글, 366-367쪽.

92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김성배, 앞의 책, 2009, 51-58쪽 참조.

필요가 있다.

⑧ 『운양집』 수록본 「자열소」

삼가 생각건대, 신은 타고난 성품이 어둡고 어리석으며 전식이 흐리멍덩하여, 일을 당하면 재보고 헤아려보지 않은 채 즉시 행하면서 큰 잘못에 빠지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갑신년(1884) 변고 때에 신은 역신(逆臣)의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냈습니다. 신은 그때 궁궐에 있으면서 사람만 만나면 그 사실을 말하였기에, 이른바 온 조정이 다 함께 안다는 말도 빈말은 아닐 것입니다. 3년이 지나도록 비방의 말이 들리지 않기에 그것이 죄가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서 속 편히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난번 대간(臺諫)의 상소가 올라왔는데, 신의 이름이 비록 드러나 있진 않았으나 신의 죄는 스스로 도망칠 곳이 없었기에, 저도 모르게 간담이 다 떨어지고 두려움에 땀이 흘러 등이 흥건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신의 본마음이 호역(護逆)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어찌하여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핑계로 편안히 관직에 머무른다면, 이 어찌 심히 염치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⁹³

『승정원일기』 수록본 「자열소」

삼가 생각건대, 신은 타고난 성품이 어둡고 어리석으며 전식이 흐리멍덩하여, 일을 당하면 재보고 헤아려보지 않은 채 즉시 행하면서 큰 잘못에 빠지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갑신년(1884)의 역적(逆賊) 박영효의 아버지 박원양은 바로 신의 매부의 본생가 형입니다. 변고가 났을 때에 박원양은 늙고 병들어 집에 있다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게 되

었습니다. 신에게는 생질이 하나 있는데 거두어 묻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건대, 박원양은 역적인 자식을 친히 낳았으니 법으로 볼 때 당연히 연좌되어야 하지만, 역적인 아들과는 의당 차이가 있고 또 죽어서 썩어 가는 유해를 도성 안에 오래도록 놔 둘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 배를 마련해주고 품꾼으로 하여금 도성 밖에 묻도록 하였습니다. 신은 그때 궁궐에 있으면서 사람만 만나면 그 사실을 말하였기에, 이른바 온 조정이 다 함께 안다는 말도 빈말은 아닐 것입니다. 3년이 지나도록 비방의 말이 들리지 않기에 그것이 죄가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서 속 편히 지냈습니다. …(하략)…⁹⁴

두 본의 큰 차이점은, 박원양의 시신을 수습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서술 부분이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그 경위를 해명하여 탄핵에 반박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발화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서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집 수록본에는 『승정원일기』에서 확인되는 상세한 내용 대부분이 삭제되어 있으며 표현에도 차이가 있다. 즉, 박영효와 박원양의 성명, 자신과 박원양이 인척 관계 사실, 박원양이 처했던 사정, 역적과 그 아버지를 동일 선상에서만 볼 수 없다는 견해, 시신을 수습한 현실적인 이유와 그 구체적인 방식 등이 삭제되었으며, '역적(逆賊)'이라는 표현은 '역신(逆臣)'으로 순화되었다. 두 본의 서술 양상이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박영효와의 교분 관계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김윤식은 박영효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기도 하였지만, 박규수의 문하를 함께 출입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교류하였으며, 박원양과는 기록에서 밝혔

93 金允植, 『雲養集』 卷8, 「自列疏【丙戌秋】」, 한국문집총간 328, 367쪽. “伏以臣賦性昏愚, 見識糊塗, 遇事徑行, 不加裁度, 不自覺其陷於大戾也. 甲申之變, 臣收瘞逆臣之父屍. 臣時在禁中, 對人輒說, 所謂‘通朝所共知’者, 非虛語也. 已經三年, 不聞訾議, 遂自恬然不知其爲罪. 向於臺疏之發, 臣名雖未露出, 臣罪自無所逃, 不覺心膽俱墜, 惶汗浹背. 回首思之, 是誠何心? 原臣之情, 其眞出於護逆耶? 人言胡爲而至此哉? 若諉以姓名不露, 晏然在職, 尤豈非無恥之甚者乎?”

94 『승정원일기』 1886년(고종 23) 7월 24일. “伏以臣賦性昏愚, 見識糊塗, 遇事徑行, 不加裁擇, 不自覺其陷於大戾也. 甲申逆賊泳孝之父元陽, 卽臣妹夫之本生兄也. 及其變出也, 元陽老病在家, 凍餓而死, 臣有孤甥, 無力收瘞. 臣竊以爲元陽, 躬生逆子, 法當連坐, 而宜與逆子有間, 且其死後, 朽穢之骨, 不宜久置於都城之內, 籌給布疋, 雇價使之埋瘞城外. 臣時在禁中, 對人輒說, 所謂通朝所共知者, 非虛語也. 已經三年, 不聞訾議, 遂自恬然不知爲罪.(하략)”

듯이 인척 관계이다.

이처럼 『승정원일기』 수록본에서 확인되는 김윤식의 상소는 인정(人情)과 도리(道理)의 논리를 전면에 내세워 자신의 행위에 공감하도록 하는 서술 전략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서술에 이어지는 정황, 즉 자신이 박원양의 시신을 수습한 사실을 공공연히 밝혔기에 그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편히 지낼 수 있었다는 주장의 명분이 된다.⁹⁵

[9] 「재소」

신이 상소하고 비답을 기다리던 날 삼가 대전의 탄신일을 맞이했는데, 신의 처소가 마침 건춘문(建春門) 밖이라 모든 관원들이 반열로 달려가고 수레와 말이 가득 줄지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 또한 성상의 화육을 입는 사람으로서 견마(犬馬)의 정성을 대략 갖추고 있으니, 기뻐 손뼉치는 마음이 어찌 남들보다 뒤지겠습니까? 그러나 공궐을 지척에 두고도 우리러보지 못한 채 홀로 느릿느릿 걸어 다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겠습니까?⁹⁶

[10] 「삼소」

신 숨죽인 채 엎드려 지내온 이래로 밤낮으로 허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의 재주는 본래 쓰임을 받기에 부족하고, 기량(器量) 또한 중임을 맡기에 적합하지 못하는데,

몇 년 동안 줄곧 장려하여 등용해 주시는 지나친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은 스스로를 헤아리지 못하고 외람되어 중임을 맡았는데, 아는 것을 다 바쳐 만에 하나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어쩔 수 없이 지식이 얇고 용렬하여 시조(時措)에 어둡고, 나라 곳간만 허비하면서 끝내 한 가지 이렇다 할 일도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만물은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서고, 공을 이루지 못하면 패합니다. 이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르친 일만 많으니, 이는 당연히 이를 수밖에 없는 형세였습니다. 지금 백성에 대한 근심과 나라의 계책은 비록 어리석은 신이 감히 망령되어 논할 바가 아니지만, 외무(外務)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신에게 있습니다. 수호통상 이래로 국세는 날로 진작되지 못하고 민생은 날로 곤체(困瘁)해져, 위로는 식견이 있는 신사(紳士)부터 아래로는 시정의 소민(小民)과 시골의 어리석은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외서(外署)에 책임자가 없음에 허물을 돌리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신에게도 귀가 있으니 어찌 들어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해명할 말이 없고, 힘써 종사하였으나, 끝내 여론이 오랫동안 쌓이고 공의(公議)를 가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는 신의 허물과 재앙이 쌓인 바이고, 매장 사건 하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⁹⁷

「재소」([9])에서는 마침 성절(聖節)을 맞이하여 대면하게 된 임금의 모습을 바라본 심경을 비중 있게 서술한다. 임금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도열한 관료들과는 달리, 자신은 먼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견마지

95 해당 상소의 『승정원일기』 기록에는, “雖木石, 豈敢不感泣承命乎? 第念臣之罪狀, 尙在白簡, 冒沒出膺, 義所不敢. 以是蟄居江郊, 朝夕待勸者, 四朔于茲矣. 近又天牌儼臨, 積成違傲之罪, 下情莫達, 至承問啓之舉, 飭旨鄭重, 敦迫嚴切, 俯仰蹙蹙, 莫省攸措.”라는 부분이 확인되는데, 문집에는 이를 “受恩罔極, 惶隕感泣.”으로 짧게 줄여놓았다. 또한 『고종실록』에는 문집과 『승정원일기』에서 모두 확인되는 “臣時在禁中, 對人輒說, 所謂通朝所共知者, 非虛語也. 已經三年, 不聞嘗議, 遂自恬然不知爲罪.”가 삭제되어 있으므로, 추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논의와 관련한 부분을 살피고, 산삭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논할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96 金允植, 『雲養集』 卷8, 「自列疏【丙戌秋】」, 한국문집총간 328, 368쪽. “臣於陳疏待批之日, 恭遇聖節, 臣之所寓, 適在建春門外, 聞千官趨班, 車馬駢闐. 臣亦化育中物, 粗具犬馬之誠, 歡欣慶忭, 豈後於人? 而咫尺觚稜, 瞻望不及, 獨行踽踽, 復出城外. 此豈得已而爲之哉?”

97 金允植, 『雲養集』 卷8, 「三疏」, 한국문집총간 328, 368쪽. “臣自屏伏以來, 蚤夜思愆. 臣之才具, 本不足適用, 器量亦不合大受, 而數年以來, 過蒙獎用. 臣不自量度, 謬膺重任, 非不欲竭其所知, 以補萬一, 而其奈知識淺劣, 昧於時措, 虛費國廩, 了無一事之可稱. 凡物不進則退, 功不成則敗. 既蔑報效, 自多愆誤, 此必至之勢也. 顧今民憂國計, 非臣之愚所敢妄論, 而至於外務一事, 其責專在於臣. 自夫修好通商以來, 國勢日益不振, 民生日益困瘁, 上自有識之紳士, 下至市井小民, 鄉曲愚氓, 莫不歸咎於外署之無人. 臣亦有耳, 豈不聞知? 亦無辭可明, 黽勉從事, 竟致輿情久蓄, 公議莫掩. 是臣愆殃所積, 不但爲埋瘞一事而發也.”

성(犬馬之誠)’의 마음은 뒤지지 않는다고 하여 충심을 내비친다. 도열한 관료들과 자신의 처지를 극적으로 대비한 후 ‘연군(戀君)의 정’을 품고도 부득이하게 돌아선 심경을 곡진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자열소는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간이자 신하로서 갖추었던 ‘정리’의 논리를 바탕으로 정황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삼소」(10)는 다소간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김윤식은 자신의 부덕함과 무능함을 논하는 중에 특히 외무를 거론하면서, 탄핵을 당한 것은 이를 전적으로 담당했던 자신의 허물과 재앙이 쌓였기 때문이며, 매장 사건 하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다. 표면적으로는 탄핵의 이유를 자신에게 누적된 잘못으로 돌리고 있지만, 갑신정변 이후 정치 세력간의 대립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으로도 읽힌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895년 을미사변 당시 김홍집 내각의 외무 대신이었던 김윤식은, 이듬해 아관파천으로 친러파 내각이 구성되고 나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탄핵을 받아 종신 유배형을 받았다. 1907년 종신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올린 「제도국 총재에 임명된 후의 자열사직소」(11)는, 『승정원일기』에 ‘사죄신 김윤식(死罪臣金允植)’이 올린 상소로 소개되며, ‘지난 일을 누누이 진달할 필요가 없으니 사임하지 말고 행공하라’는 비답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⁹⁸ 문집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은 몇 글자의 출입을 제외하면 대체로 일치한다.

① 지금 성조(聖朝)는 온갖 교화를 유신(惟新)하고 각종 제도를 경장(更張)하며, 초야에 묻혀 있는 선비를 널리 등용하고 미천한 구신(舊臣)도 버려두지 않고 있습니다. 신이 이러한 때에 감히 구구한 사적인 감정으로 망령되이 거취의 뜻을 아뢰 수는 없습니다. ② 그러나 신은 허물이 가득한 자라 털어 없애려 하여도 그럴 수 없습니다. 다행히 천벌을 면

했다고 다시 외람되이 조정의 반열에 끼어든다면, 세간에 염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어찌 알게 하겠습니까? ③ 고향 산에 숨어 사는 것은 수구초심(首丘初心)만 간절했기 때문인데, 도성문을 바라보며 경양(傾陽)의 정성을 본받지 못하고 명령을 따를 길이 없으니 눈물만 흘렸습니다. ④ 이에 짧은 글을 올려 애달픈 심정을 무릅쓰고 아뢰나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굽어 헤아리시어 신에게 새로 임명하신 직명을 거두시고 영원히 사판(仕板)에서 깎아내심으로써 공기(公器)를 소중히 하옵시고 제 사사로운 분수가 온당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⁹⁹

이 ‘자열사직소’는 종신 유배에서 풀려난 후 직임을 제수받고 이를 사양하는 상소이므로, 통상적인 사직소에 언급되는 단순한 자질 부족이 아닌 허물을 적극적으로 논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임을 제수한 왕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덕을 기리는 서술 역시 요구된다. 김윤식의 상소에는 이러한 고려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데, 주목되는 부분은 첫 번째 문장이다. 당시는 ‘유신과 경장의 시기’로, 특별히 ‘미천한 구신’까지 등용하였다는 것을 거론함으로써, 자신이 제수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드러낸다(①). ②와 ③은 미묘한 대조를 이룬다. 외람되이 조정에 반열에 끼어든다면 염치가 없는 자가 되지만(②), 임금 계신 도성문을 바라보며 ‘경양(傾陽)의 정성’¹⁰⁰을 본받지 못하고 명령을 따를 길이 없어 눈물만 흘린다(③). ④에서 언급하는 ‘애달픈

99 金允植, 『雲養集』 卷8, 「制度局總裁除拜後自列辭職疏」[隆熙元年丁未六月], 한국문집총간 328, 368쪽. “方今聖朝萬化維新, 百度更張, 恢弘山藪之量, 不遺簪履之舊. 臣於此時有不敢以區區情私, 妄陳去就之義. 然以臣之疵類滿身, 雖欲拂拭, 不可得矣. 既已幸道於天誅, 又復冒廁於朝班, 是豈識世間有廉恥者乎? 棲遲故山, 只切邱邱之戀, 瞻望象魏, 莫效傾陽之忱, 無路承膺, 有淚被面. 茲陳短章, 冒控哀表. 伏乞聖慈俯垂鑑諒, 還收臣新授職名, 永刊仕板, 以重公器, 以安私分焉.”

100 위(魏)나라 조식(曹植)의 「구통친친표(求通親親表)」에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잎을 기울이는 것처럼, 비록 빛을 돌려주지 않아도 늘 그곳을 향하는 것은 바로 진실 때문이다[若葵藿之傾葉太陽 雖不爲之回光 然終向之者 誠也].”라고 하였다.

98 『승정원일기』 1907년(순종 1) 6월 28일.

삼정'은, 직명을 거두고, 영원히 사판에서 깎아내 달라는 단호한 발화를 곱씹게 만든다.

문집에 수록된 김윤식의 상소는 1907년에 끝이 난다. 『승정원일기』에서도 이 글이 마지막 상소로 확인된다. 김윤식이 유배지인 제주로 향할 때 아들에게 보인 시에는, 종신 죄는 무거운데 처벌은 오히려 가볍다는 탄핵 상소가 괴롭게도 그치지 않고, 여론마저 흥흥하니 목숨 가볍기가 종잇장과 같다고 하였는데, 당시의 엄중한 국면과 김윤식이 느꼈던 위기감을 확인할 수 있다.¹⁰¹ 이러한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조정에 돌아와 올린 김윤식의 상소에는, 새로운 시대의 '시세'와 충신이 갖춘 '정리'의 논리가 전략적으로 교직되어 있다.

4. 맺음말

김윤식의 주의류 산문은 19세기 중반부터 대한제국기에 걸친 기록으로, 그동안 삼정의 운영이나 국제 정세에 대한 대응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주목 받았다. 본고에서는 당대에 손꼽히는 문장가이자 관각문인으로 평가받는 김윤식의 면모를 바탕으로, 문학적 관점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김윤식은 경세지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주의문을 역사적 견문을 넓히고 정책을 참고하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문장의 전범으로 주목하였다. 김윤식의 문집에는 주의문에 대한 독서 기록과 비평, 작법과 독법에 대한 시각을 살필 수 있는 글이 다수 확인되며, 김윤식의 주의문 비평은 문장의 풍격, 논지 전개와 수사법, 경세론, 작자에 대한 인물 비평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김윤식은 주장의 타당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의 정합성이 글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가를 주의류 산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으며, 군심을 움직일 만한 설득력을 갖춘 글을 고평하였다. 「팔가섭필」에서는 당송팔대가의 주의문을 문장의 전범으로서 적극적으로 논평하였으며, 김육의 상소문에 붙인 서후에서는, 김육의 경세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충신의 면모를 높게 평가하였다. 김윤식의 「삼정책」에서 확인되는 직설적 화법과 격렬한 수사, 시무 중심 구폐론의 전개 양상은, 김윤식의 문장론과 주의문 비평에서 확인되는 경세지문에 대한 관점, 가감 없는 직언과 요연한 논지 전개에 대한 고평에 나타난 시각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880년대에 집중된 김윤식의 상소에서는 기민한 '시세' 파악을 근거로 한 정책적 판단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서술이 두드러지는데, 김윤식은 '시세'를 논하는 단락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다. 이러한 서술적 특징은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요동치던 시기, 김윤식이 맡은 내외직이 이에 대응하는 중책이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 또한 '시세'의 변화와 역학을 중시한 김윤식의 경세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탄핵과 종신 유배, 해배를 거치는 기간 사이에 작성된 상소는 정치적 공박에 대한 해명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자열소나 사직소에는 곡절한 표현을 바탕으로 '정리'의 논리를 치밀하게 동원하는 서술 양상이 확인된다.

'관각거장'인 김윤식의 주의류 산문은 관료로서의 능력과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집에 실린 김윤식의 주의문에는 관직을 두루 거치며 중책을 맡았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유능한 관료로서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며 조정의 신임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작자의 생애를 복원하고 인물됨을 기리는 문집의 매체적 특성상, 김윤식은 작품의 선별과 편차 과정에서 이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고려하였을 것으로 생각

101 金允植, 『雲養集』卷5, 「余待罪芳村寓舍. 丁酉至月, 臺彈復起, 被逮囚禁. 旋蒙濟州牧流終身之命, 臨發登船作, 示兒裕曾」, 한국문집총간 328, 303쪽. "罪重罰猶輕, 彈章苦不止. 外議頗洶洶, 性命薄如紙."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윤식의 주의문은 정확한 시세 파악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강을 위해 애쓰는 관료이자, 인정과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충신의 면모가 부각되어 있다. 추후 김윤식의 일기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한다면, 김윤식의 인식과 주의문 안팎의 서술 맥락을 더욱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高宗實錄』/『每日申報』/『承政院日記』/『列聖御製』, 장서각 소장본(K4-13).
 『哲宗實錄』
 金堉, 『潛谷遺稿』, 한국문집총간 86.
 金允植, 『雲養集』, 한국문집총간 328.
 朴珪壽, 『嶽齋集』, 한국문집총간 312.
 俞萬柱, 『白菴先生詩抄』,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奎 11980-v.1-4).
 俞莘煥, 『鳳樓集』, 한국문집총간 312.
 正祖, 『弘齋全書』, 한국고전종합DB.
 趙斗淳, 『心庵遺稿』, 한국문집총간 307.
 崔漢綺, 『增補 明南樓叢書 1』, 동아시아학술원 大東文化研究院, 2002.
 徐師曾, 『文體明辨』, 오성사, 영인본, 1984.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https://sjw.history.go.kr/main.do>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2. 단행본 및 논문

- 강혜중, 「壬戌(1862)년 三政敕弊論의 형성 양상과 성격 고찰」, 연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 「19세기 公論 형성의 글쓰기 지형 검토: 문집 소재 奏議類 및 論辨類 산문의 時務論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45, 한국한문고전학회, 2022.
 권진욱, 「雲養 金允植의 記文 研究」, 『한국인물사연구』 24, (사)한국인물사연구회, 2015.
 ———, 「雲養 金允植의 碑誌類 산문 연구」, 『동양고전연구』 84, 동양고전학회, 2021.
 김명호, 『한재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김성배, 「19세기 조선의 유교와 근대국제정치: 윤양 김윤식의 경우」, 『국제정치논총』 47,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 『유교적 사유와 근대 국제정치의 상상력: 구한말 김윤식의 유교적 근대 수용』, 창비, 2009.
 김용섭, 『韓國近代農業史研究. 1: 農業改革論 農業政策(Ⅰ)』, 지식산업사, 2004(新訂 增補版).
 김용태, 「애국계몽기 雲養 金允植의 사상과 활동」,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 「김윤식과 스에마쓰겐초의 시문 수창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42, 열상고전연구회, 2014.
 김현주, 「김윤식 사회장 사건의 정치문화적 의미: '사회'와 '여론'을 둘러싼 수사적 투쟁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3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노대환, 「19세기 중엽 俞莘煥 學派의 學風과 現實 改革論」, 『한국학보』 72, 일지사, 1993.
 망원한국사연구실, 『1862년 농민항쟁: 중세말기 전국 농민들의 반봉건 투쟁』, 동녘, 1988.
 배향섭·손병규, 『임술민란과 19세기 동아시아 민중운동』, 성균관대 출판부, 2013.
 백승철, 「윤양 김윤식의 국제 정세인식과 외교론」, 『열상고전연구』 42, 열상고전연구회, 2014.
 송찬섭, 「1862년 농민항쟁과 소통의 정책」, 『한국사연구』 161, 한국사연구회, 2013.
 연민희, 「雲養 金允植 散文의 表現技法 研究」, 『어문연구』 98, 어문연구학회,

- 2018.
- _____, 「雲養 金允植의 散文 研究」, 충남대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윤재환, 「雲養 金允植의 詩論과 詩世界의 實際: 지도 유배기 시를 통해 본 시론의 구현 양상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84, 동양고전학회, 2021.
- 윤호진, 「金允植의 「八家涉筆(其二)-柳文 研究」, 김도련 편, 『한국고문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1998.
- 이상욱, 「조선후기 과책(科策) 참고서의 작법 요령: 『책형(策型)』과 『변려화조(駢儷華藻)』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72, 열상고전학회, 2020.
- 이지양, 「김윤식의 동도서기론과 개화론」, 『열상고전연구』 42, 열상고전학회, 2014.
- 임경석, 「운양 김윤식의 죽음을 대하는 두개의 시각」, 『역사와 현실』 57, 한국역사학회, 2005.
- 정민, 「雲養 金允植의 貫道論과 歷代文評」, 『조선후기 고문론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 최식, 「策文의 특징과 글쓰기: 『策文準』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 하경진·최해연, 「운양(雲養) 김윤식(金允植)의 사행시를 통해 본 인식 변화」, 『영주어문』 21, 영주어문학회, 2011.
- 황재문, 「雲養 金允植 散文 研究: 文論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 _____, 「雲養 金允植의 中國 認識: 領選使 활동 시기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15, 고전문학한문학회, 2013.

Abstract

A Study on Unyang Kim Yun-sik's Juui-ryu Prose

Kang, Hye-Jong | Yonsei University

Unyang(雲陽) Kim Yun-sik(金允植, 1835-1922) was a bureaucrat-literatus associated with Dongdo Seogi(Eastern Ways, Western Technology) and a prominent writer whose political position has invited diverse interpretations. His sustained concern with Simu(current affairs) and his activities as a court literatus suggest that Gyeongse-ji-mun(essays on statecraft and governance) constituted a significant dimension of his prose. This study examines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his Juui-ryu prose(memorials to the throne) in relation to his theory of prose and explores how his political perceptions were articulated through writing.

Kim highly valued Gyeongse-ji-mun, regarding Juui-ryu prose as both a source of historical and political knowledge and a model for literary composition. His criticism emphasized valid arguments, logical coherence, persuasive rhetoric, and candid expression. These principles are exemplified in Samjeong-chaek, whose direct language, forceful rhetoric, and reformist arguments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His memorials of the 1880s likewise justified policy decisions through a keen understanding of Sise(state of the times), while carefully structured discussions strengthened their persuasive force. His Sajik-so(resignation memorials) and Jayeol-so(self-explanation memorials) further combined autobiographical accounts of official service with political self-justification, strategically employing Jeongri(human emotion and reason) as a persuasive logic in bureaucratic discourse.

Keywords Kim Yun-sik, Sangso, Samjeong-chaek, Discourse on Literary Style, Current Affairs, State of the times, Byeontong